

LOCKE 163

真理便讀三字經





COX 1-463

西曆一千八百九十五年

真理便讀三字經



朝鮮開國五百四年乙未京耶穌教書局印發

4 DONS  
No 7857



真理便讀三字經

一 獨一上帝

大

대 큰

造

조 음 지

主

주 금 남 는

卽

즉 곧

上

상 으뜸

帝

태 금 남 시 니

帝

태 금 남

是

시 이

誰

슈 구 누 오

聽

팅 톨 드

仔

즈 셰 즈

細

제 셰 즈 흥 라

天

틴 님 하

與

여 블 더

地

디 셔 와

人

인 름 사

與

여 블 더

物

물 물 만 을

三字經



一



皆 다

上

상 웃

帝

테금님

親

친 흘쳐

造

조 을지

出

출 날이  
나리  
라지

論

론론의

上

상 웃

帝

테금님  
컨대

本

본 밋

無

무슬업

形

형용  
형이  
며지

止

지칠곳

獨

독 흘

一

일 혼  
니이  
시

是

시 이

眞

진 춤

神

신령신  
니이  
라지

全

전전온

知

지 알

能

능 흘  
능이  
며지

全

전전온

聖

성 무거

義

을시  
며

全

전전온

仁

인질어

善

선 흘  
착이  
며지

無

무슬업

變

변 흘변

易

역 끝  
박이  
며지

7



無

무슬 없

始

시슬로비

終

종 즐 못 이 시  
니 이 시

大

대 큰

本

본 밋

源

원 원 근 이 지  
니 라

為

위 하

天

텨늘하

地

디 사 와

萬

만 만 일

物

물 물 만

先

선 저 몬 예

居

거 살

天

텨늘하

堂

당 집 하 사

顯

현 날라나

榮

영 하 영

愛

이 랑 사 하 지  
니

然

연 릴 그

其

기 그

體

테 몸 스

無

무 슬 없

不

불 날 하

在

지 슬 잇 하 지  
니

有

유 슬 잇

萬

만 만 일

物

물 물 만 이

由

유 암 미 말

上

상 웃

帝

테 금 님 타



此 이  
 眞 진  
 道 도  
 當 당  
 知 지  
 悉 실

대개 크게 조성하신 줄은 못하느니라 하시니 하느님은 누구신  
 지스세이 드르라 하늘과 땅과 사물과 다 못만물을 다 하느님  
 썩서 친히 지어 내심이니라 하느님을 의론하건대 본디 형용  
 이 업스시고 홀노 하느님이시니 참신령이시니라 온전이 알  
 으시고 능하시며 온전이 기록하시 고을하시며 온전이 어지  
 시고 확하시며 변함파 받고 임이 업스시며 처음과 나중이 업  
 스시니 큰근본의 근원이시니라 하늘과 땅과 사물과 만물 되기 전에  
 현당에 계시샤 영광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니 그러하나 그  
 데는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업스시니 만물이 하느님을 말미암아  
 잇슴이라 이는 총도이니 맛당이 알지어다



二 封神之謬

廟

묘 당 스

中

중 티 온 가

佛

불 처 부 과

菩

보 삼 보

薩

살 살 보

們

문 리 무 과

同

동 지 가 호

玉

옥 슬 구

皇

황 금 님 과

千

천 천 일

萬

만 만 일

神

신 신 귀 을

人

인 립 사

心

심 음 막

想

상 각 심 호 야

人

인 립 사

手

슈 손

出

출 날 호 나

非

비 날 아

主

주 금 님

宰

제 상 제 오

惟

유 직 오

土

토 흙

木

목 무 나 이 타

彼

미 터

偶

우 삭

像

상 상 형 은

盡

진 할 다

虛

허 빛

空

공 빛 이 니

敬

경 경 공

拜

비 절

之

지 갈 라 도

毫

호 못 름

無

무 쓸 업

用

용 쓸 이 호

釋

석 흘 노

迦

가 장

佛

불 처 부 은

是

시 이

凡

범 못 브

夫

부 비 아 지 라

其

기 그

本

본 밋

國

국 카 나 은

卽

즉 곳

天

헛 늘 하

竺

축 라 나 이 호

諸

저 들 모

菩

보 살 보

薩

살 살 보 은

佛

불 처 부

徒

도 리 무

弟

테 오 아 라



稱

칭 례 크 날

為

위 하

神

신 령 신 이

大

대 큰

悖

배길 어

理

리 치 리

로 다

張

장 플 베

玉

옥 슬 구

帝

테 금 님 는

後

후 뒤

漢

한 슈 한

人

인 름 사

이 라

徽

휘 올 다 름 아

宗

종 루 마

時

시 쉐 에

封

봉 흘 봉

為

위 하

神

신 령 신

이 오

聞

문 례 드

太

태 클

師

스 승 스 로

為

위 하

雷

뢰 뢰 우

祖

조 비 아 할

하 고

東

동 념 동

嶽

악 외

帝

테 금 님 는

黃

황 르 누

飛

비 늘

虎

호 이 랑 호 오

趙

조라나

玄

현을감

壇

단터제은

生

성날

紂

쥬흠일

時

시세고

劉

류성

長

장긴

生

성날으로

為

위하

祖

조비하할

師

스승스하니

此

차이

一

일하

類

류홀로

生

성날

是

시이

人

인름사이오

到

도를나

死

스름죽

後

후뒤에

只

지만다

是

지이

魂

훈훈령이어

人

인름사

封

봉홀봉

神

신령신하니

風

풍람바

俗

속속풍

敗

패홀패라



無

무슬 업

有

유슬 잇

二

이 두글

是

시 이

真

진 출

理

리 치 리니 타

人

인 룬사

該

히 당 맛

敬

경 경 공은

乃

내 에 이

上

상 웃

帝

데 금 님 시 니

無

무슬 업

權

권 세 권

能

능 흘 능과

害

해 흘 해

與

여 불 더

救

구 완 구니 타

向

향 흘 향

彼

피 더

等

등 리 무글 하

徒

도 갖 혼

然

연 렬 그

求

구 흘 구라 도

最

최 장 마

虛

허 뵈

空

공 뵈 이 오

最

최 장 마

邪

샤 샤 간

壞

피 질 허 문 니

看

간 볼

此

이

章

글 할 야

當

맛

去

가

假

거

敬

경 경 공

上

상

帝

님 할 면

福

복

無

무

涯

가

묘가온티부쳐와보살들과옥황과천만가지귀신을사름의  
모음으로싱각하야사름의손으로드러내니쥬적는아니  
오오직흠파나무라더허수아비는다헛거시니공정하야절  
홀지라도조곰도쓸티업고석가불은범상한사름이라그본  
죽은곳럼축이오모든보살은부쳐의데즈라신이라닐크름  
이크게리치에어그러지도다장육체는후한사름이라회종  
씨에봉하야신이라하고문대스로되조라하고동약데는황  
비호오조현단은은은슈씨에나고류장심으로조스라하니이  
런류는살아사름이오죽은후에다만령혼썩이어늘사름이

봉헌야 신이라 공니 풍후이 파홀이라 2 장헌되고 2 장간사  
호니 더 희를 향호야 공작구홀지라도 권세와 능홀과 해롭재  
홀과 구원홀이 업느니라 사툼의 맛당이 공정홀기 스이 에 하  
느님이 시니 들히 업스 신총리치니라 이 글을 보아 맛당이 거  
조거술 버리고 하느님을 공경호면 복이 한량 업술거 시니라





三萬有真原

造

조을지

萬

만만일

物

물물만을

帝

테금님

創

창솔로비

首

슈리머에

乃

내에이

從

종칠좃

無

무슬엡하야

而

이이말

造

조을지

有

유슬잇하지

清

청을몹

氣

기운기

天

덴늘하이오

濁

탁밀흐

氣

기운기

地

디싸니

未

미블아

造

조을지

時

시쇄에

無

무슬엡

二

이두

氣

기운기타

此

크 이

二

이 부

氣

가운 기

與

여블 더

五

오 숙 다

行

행 날 트 이

非

비 벌 하

自

자 리 스 스

有

유 슬 윗 오

帝

데 금 님

造

조 을 지

成

성 을 일 나 이 지

無

무 슬 없

造

조 을 차

有

유 슬 윗 1

實

실 상 실

神

신 령 신

妙

묘 할 묘 로 다

除

져 덜

上

상 웃

帝

데 금 님 편

無

무 슬 없

能

능 할 능

造

조 을 지 니 라

造

조 을 자

天

텨 늘 하

地

디 사 와

萬

만 만 월

物

물 물 환

全

전 전 온 후 사

大

대 큰

功

공 공

成

성 울 일이

只

지 만 다

六

륙. 초 여

天

천 늘 하 이 지  
라

第

데 레 次

七

칠 곱 七

天

천 늘 하 에 는

做

부 을 지

何

하 지 엇

事

스 일 오

為

위 ㅎ

安

안 안 편

息

식 쉼 ㅎ 야

傳

전 흘 전

於

어 늘

世

세 간 인 ㅎ 시  
니

安

안 안 편

息

식 쉼

曰

일 날 은

人

인 름 사

該

히 당 맛

守

슈 힐 직 니

乃

내 게 이

教

교 칠 르 마

規

규 법 라

垂

슈 올 리 드

永

영

久

부 램 호 니 라

敬

경 경 공

天

험 늘 하

地

디 처 늘

非

비 늘 아

所

소 바

宜

의 당 맛 오

敬

정 경 공

上

상 웃

帝

테 금 님 느

乃

내 에 이

合

합 흘 합

理

리 치 리 라

天

험 늘 하

覆

부 흘 덮

我

아 나 흥 고

地

디 처

載

직 을 실

我

아 나 흥 니

為

위 흥

我

아 나

用

용 쓸 이 라

祭

제 소 제

不

불 늘 아

可

가 흘 을 로 다

譬

비 흥 비

天

험 늘 하

地

디 처 권 대

像

상 상 형

房

방 들 구

屋

옥 집 이 오

譬

비 혼 비

上

상 웃

帝

테 금 님컨대

像

상 상 형

父

부 비 아

母

무 미 어흐니

拜

비 절

房

방 들 구

屋

옥 집 은

禮

레 돈 레

不

불 닐 아

應

응 벅 락이오

敬

경 경 공

父

부 비 아

母

무 미 어는

分

분 혼 는

内

니 안

情

경 뜻이라

錯

착 룯 그

認

인 알

天

현 늘 하하야

為

위 하

上

상 웃

帝

태 금 님흐니

乃

네 에 이

大

대 큰

謬

류 룯 그라

最

최 장 ㄹ

可

가 흘 가

惜

석 길 다 앓이로



人

인 름 사

多

다 흘 만

云

운 울 날  
하 터

盤

반 반 소

古

고 비

氏

시 시 각  
하 가

分

분 흘 는

天

현 볼 하

地

디 처  
하 고

首

슈 리 머

御

어 기 어

世

제 간 인  
나 라  
하

此

차 이

等

등 리 무

話

화 습 말  
는

毫

호 솟 털

無

무 습 험

據

거 거 빙  
라

乃

내 에 이

是

시 이

人

인 름 사  
이

捏

날 흘 모

造

조 습 지

語

어 습 말  
다 로

昔

석 빛

孔

공 멩 구

子

즈 톨 하  
이

剛

산 털

古

고 비

書

석 클  
할 시

其

기 그

定

딩 흘 명

斷

단 흘 혼 이

自

자 리 스 스

唐

당 라 나

虞

우 라 나 나라

故

고 고 연

四

스 녁

書

셔 글 화

及

급 출 밋

五

오 츄 다

經

경 글 에

皆

기 다

不

불 닐 하

載

지 을 실

盤

반 반 소

古

고 비

名

명 흙 일 이 오

因

인 흘 인

三

삼 석

皇

황 금 님 이

茫

밍 흘 특 하

無

무 슬 겁

稽

계 흘 고 상 하 야

司

스 흘 맛

馬

마 들

遷

천 길 읍 이

概

개 개 대

不

불 닐 하

題

테 쏘 어 든



况

황며를하

天

턴늘하

地

디싸는

實

실상실

大

대큰

哉

지기잇라

天

턴늘하

下

하래하

人

인름사는

做

주을지

不

불닐아

出

출날듣이어

卽

즉곳

一

일흔

草

초풀와

卽

즉곳

一

일흔

木

목모나도

更

깁옥더

虛

허뵈

幻

환일고밧하니

不

불닐아

須

슈이죽름모

言

언슴말이니

况

황며를하

盤

반반쇼

古

고게는

三

삼석

皇

황금님

前

전압이라



只

지만 다

成

성을 일

帝

티금님

一

일 홀

國

국라나

度

도도범나라

統

통릴는거

世

세간인

界

계정디

萬

만만일

千

천천일

數

수어두흐샤

親

친홀친

創

창솔로비

造

조를지

天

턴놀하

與

여블터

地

디쉬흐지

爾

이너

當

당당맛

知

지알는

帝

티금님

能

능홀능

力

력힘으로

豈

끼지엇

盤

반반쇼

古

끄베가

能

능홀능

分

분홀는

開

끼얼리오

하는 념씩셔 만물을 비로 소지으실 처음에 업슴으로 잇슴을  
지으시니 몸은 괴운은 하늘이 되고 흐린 괴운은 썩히 되니  
드지 아니 할새에 두 괴운이 업는 지라 이 두 괴운과 다 못오  
히 스스로 잇슴이 아니 오하는 념씩셔 조형함심이니 업는  
거스로 잇는 거슬은 든 거시 실노진묘함도 다 하는 념이  
아니면 능히 든 드지 못함는 나라 현디를 든 드시고 만물을  
은 전이 함시 티 큰 공일우심이 다 만여 숫날이 시니  
라 날 곱재 날에 능부 숨일을 함섯는 노안식함샤  
세상에 전함시니 안식일은 사름 이 맛당이 직함  
거시니 이에 교중유모라 영원이 폐치 못함 거  
시니 라 현디를 공정함는 거스 맛당치 아니 함고  
하는 념을 공정함는 거스 리치에 함당함  
나라 하늘은 나를 돕고 썩은 나를 실엇시니  
내게 씀이 되는 지라 제스름이 올지 아니 함  
도 다 현디는 비천대 집고 고하는 념는 비천대  
부모고함니 집에 절함는 거스 르 절에  
벽벽이 함 거시 아니 오 부모를 공정함는  
거스 직분에 일이라 하늘을 그릇 알아  
하는 념이라 함니 2장 가석



홍도다 사름이 만히닐으티 반고 시가 현디를 논호고 처음으  
로 세 상을 어거 헛다 하니 이런 말은 털썩만 콧도 빙거가 업  
는지 라이는 사름이지어낸 말이로다 넷적공즈가고 셔로 덜  
식그 덩헛야 싯흙이 당나라와 우나라로 브러호지라 그런고  
로 스셔와 오정에 다 반고 시 일흙을 기록지아니 헛고 삼황  
이하득헛야 상고 흙길이 업숨을인헛야 스마천이 매개 쓰지  
아니 헛거 든헛물며 반고는 삼황이 전이라 더욱허황하니  
모름즉이 말할거시아나 나라호플과 호나모도 세 상 사름은  
문드러내지 못헛거 든헛물며 현디는 실노큰지라 엇지 반고  
가능히는 호아 열엇시 리오너 회는 맛당이 하느님의 능력으  
로 친히 현디를 창조헛시고 세계에 천만가지 틀거느리자다  
만하느님의 호나라 법도 를 일우신거 술알지니라

四 聖賢敬帝

此 上 帝 古 人 知  
 츠 이 상 웃 테 금 님 느 고 비 인 름 사 지 알  
 하야

常 敬 拜 畧 言 之  
 상 상 흥 경 경 공 비 절 하 나 락 락 간 언 습 말 지 갈  
 하노

類 上 帝 虞 舜 行  
 류 흘 누 샹 웃 테 금 님 느 우 라 나 초 금 름 흥 흘 흥  
 이오

昭 受 帝 夏 禹 訓  
 소 을 목 슈 을 밧 테 금 님 느 하 름 녀 우 금 님 흥 칠 르  
 마이라

三字經 十二

皇

황금님

上

상 웃

帝

테금님

惟

유직오

降

강릴

衷

창속은

成

성을일

湯

탕을쓸

言

언슴말  
아니

理

리치리

最

최장

通

통홀통  
다이로

有

유슬잇

上

상 웃

帝

테금님  
는

湯

탕을쓸

王

왕금님

畏

외올테  
두하야

敢

감히

不

불닐아

正

정를바

夏

하름너

桀

걸흠일

罪

죄물허  
나라  
나라

周

주루두

文

문월글

王

왕금님  
은

或

혹혹

陟

척를오

降

강릴  
는  
이



在

지 슬 잇

上

상 웃

帝

테 금 님

左

좌 윈

右

우 흘 울

旁

방 것 리  
항 고 다

佑

우 슬 도

下

하 래 하

民

민 정 빅  
항 사

作

작 슬 지

君

군 금 님

師

스 승 스  
항 사

相

상 슬 도

上

상 웃

帝

테 금 님  
는

武

무 반 호

王

왕 금 님

詞

스 슬 말  
라 니

郊

교 들

社

샤 직 샤

禮

례 돈 례  
는

事

스 길 섬

上

상 웃

帝

테 금 님  
니

孔

공 명 구

子

즈 돌 하

言

언 슴 말  
이

非

비 님 하

無

무 슴 업

意

의 뜻 로 다

30

孟

링 맛

子

즈 들 아

言

언 심 말  
후 티

人

인 름 사

雖

슈 록 비

惡

악 질 모 이 나

能

능 흘 능

齋

지 계 지

浴

욕 욱 목 이 면

祀

스 스 제

帝

데 금 님

可

가 흘 올 라 후

此

차 이

類

류 흘 ㄹ

語

어 습 말 ㄴ

說

설 습 말

不

불 님 아

盡

진 흘 다 이 로

惜

석 길 앓

世

세 간 인

人

인 름 사 이

心

심 음 ㅁ

不

불 님 아

明

명 을 ㅁ 후 야

錯

착 ㄹ 그

認

인 알

佛

불 처 부 ㅁ

玉

으 슬 구

皇

황 금 님

筭

등 리 무 ㅁ



免

면훈면

上

상웃

帝

테금님의

動

동일죽움

義

의훈을

怒

노별성훈라

勸

권훈권

爾

이너

象

중리무훈노

速

속훈속

醒

성설

悟

오설훈야

讀

독일러터

真

진춤

主

주금님의

實

실상실

可

가훈을

哀

의플슬로다

為

위훈

上

상웃

帝

테금님의

為

위훈

主

주금님의

宰

지상지훈야

天

틴늘하

與

여블터

地

디싸와

千

천천일

萬

만만일

神

신신귀을

32



一

일 혼

同

동지가 혼

来

리 올

心

심 움 막

意

의 뜻

虔

건 섬 경  
하야

敬

경 경 공

上

상 웃

帝

테 금 님  
호고

莫

막 말

迷

미 릴 흐

眩

현 올 러  
즈 어 이  
다 어

하는님은넷사름이알아홍상공정하고절호였시니약간말

하노라하는님의제스훈은우슈이행호였고복히하는님의

밧음은하오의마르침이라황호하는님의서정성을느림은

성탕의말이니리치가장통호였도다하는님이계심은성

탕이두리워호야감히하절의죄를바르지아니리오호니라

주된왕은혹오르고느림이하는님좌우에잇다하고빅성을

도으자님금과스승을지으사하는님을돕는다함은무왕의

말이라교스호는테는하는님을섬김이나공즈의말이뜻업

는거사아니로다링즈말호티사름이비록악하나능히지

계하고 묵욕함면하는 남외가히 계스훈다 함니이 갓함말은  
말노다 함지 못함갓도다 앓갑다 세상사름은 모름이 북저 못  
함야 그릇부처와 옥황과 하늘과 싸와 천만가지 귀신을하는  
남이라 함며 주적라 함야 춤되 신주를더러이니 실노슬고도  
다 너희 무리를 권함느니 속히세드러하는 남의을호신노함  
심을면함라 함가지로긋치와셔 모름과 뜻술정성함야하는  
됨을공경함고미 현함지말지이다

五 人之本源

亞

하금버

當

당당맛

男

남내사 이오

夏

하름녀

娃

와집계

女

녀집계 나

普

보을뵤

天

틴늘하

下

하래하

人

인름사

始

지솔로비

祖

조비아 할로다

人

인름사

之

지갈

體

티몸

兩

량두

位

위리자

分

분홀 느하니

一

일훈

肉

육기교

身

신몸 이오

一

일훈

靈

령령진

魂

훈 녀리라



是

지 이

何

하 지 엇

物

물 물 만로

做

주 을 지

人

인 료 사

身

신 몸 고

上

상 웃

帝

데 금 님

用

용 쓸

土

토 흙

造

조 을 지

成

성 을 일 이 오

人

인 료 사

之

지 갈

魂

혼 녀 은

乃

내 에 아

靈

령 령 신

物

물 물 만 이 니

亦

역 또

上

상 웃

帝

테 금 님 의

所

소 바

特

특별 특

賦

부 을 티 니 라

為

위 할

氣

기 운 기

物

물 물 만 은

人

인 료 사

之

지 갈

身

신 몸 이 니

有

유 슬 잇

形

형 용 형

像

상 상 형 이 오

有

유 슬 잇

死

스 을 죽

生

생 날 이 라

身

신 몸

死

스 을 죽

後

후 뒤 에 도

魂

혼 녁

不

불 닮 아

亡

망 흘 망 흥 야

罰

벌 흘 벌

地

디 처

獄

옥 옥 흥 며

賞

상 줄 상

天

텨 늘 하

堂

당 집 흥 닷 니 라

有

유 슬 잇

三

삼 석

魂

혼 녁 은

乃

내 에 이

虛

허 뵈

語

어 슴 말 호

是

시 이

一

일 호

魂

혼 녁 이

是

시 이

眞

진 춤

理

리 치 리 니 라



後

후 뒤

在

지 슬 잇

園

원 산 동  
가 이 라

被

피 을 님

逐

추 칠 쑤

出

출 날  
후 니

華

하 날 빛

園

원 산 동

內

니 안  
후 야

樂

락 길 즐

無

무 슬 험

邊

변 가  
이 러

人

인 름 시

始

시 솔 로 비

祖

조 비 아 할  
ㅣ

住

쥬 를 머

埃

애 솔 트

田

뎨 밭

性

성 품 쟁

維

유 직 호

善

선 할 착  
이 호

心

심 읍 무

惟

유 직 호

良

량 질 어  
이 라

主

주 금 님

造

조 을 지

人

인 름 차  
을

衆

상 양 모

己

기 몸

像

상 상 형  
니 후 지

祖

조비아할

亞

아금버

當

당당맛과

與

여블터

夏

하름녀

娃

와집게나라

誰

슈구누

第

테레타

一

일흔

犯

범흘범

帝

테금님

法

범범고

因

인흘인

犯

범흘범

罪

죄물허며

違

위길어

帝

테금님

命

명흘명이니

為

위할

何

하지엇

事

스일로

受

슈을받

此

츠이

刑

형벌형고

是

시이

誰

슈구누

逐

축칠쓰고

乃

내에이

上

상웃

帝

테금님시니

繼

계을니

亞

하금버

當

당당맛  
하야

做

조을지

子

즈돌아

孫

손즈  
손글니

象

중리무

心

심음마

內

니안에

有

유슬잇

惡

악슬몹

根

근희  
썬이라

天

틴늘하

下

하래하

人

인름사이

皆

키다

一

일흐

類

류홀  
곳나

無

무슬업

有

유슬잇

一

일홀

不

불닐하

犯

범홀범

罪

죄물허

하당은사나회오하와는계집이니온련하사름의  
시조로다사름의몸이두위에는호엿시니흐나흔  
육신이오흐나흔령흔이라이무슴물건으로사름



의 몸을 문드러지는 노하는 남 쇠셔 흠으로써 조성하  
신 거시오 사름의 혼은 이에 령훈물 건이니 또 흐하  
는 남 쇠셔 특별이 티오신 거시라 기운된물 건은 사  
름의 몸이니 형상이 잊고 죽고 사는 거시 잊는지라  
육신이 죽은 후에 도령 혼은 업서 지지 아니 하야 디  
옥으로 별을 향며 령당으로 상을 향는 나라 삼 혼이  
잇다 흠은 이에 허훈 말이 오이 령훈 하나 히 참리치  
나라 주 쇠셔 사름 문드림을 조기 모양으로 형상하  
시니 성품이 오직 확하고 믿음이 오직 어지니라 사  
름의 시조가 이턴 화원에 머물너 즐거음이 한량이  
업터니 후회 동산에 잇다가 쫓차 내침을 남 엿시니  
이누구가 꽃찾노고 이에 하는 남이 시나라 무슴일  
노하여 이 형벌을 받았노고 죄를 범함 하야 하는 남의  
명령이 김을 인함이니라 누구가 데일 노하는 남의  
법을 범함 엿는고 시조아 당과 다 못하와 나라아 당

을 너 어 스 손 이 되 니 뭇 사 롱 의 무 음 속 에 악 훈 썬 희  
가 잇 는 지 라 현 하 사 롱 이 다 훈 류 니 훈 나 도 죄 를  
범 훈 지 아 니 훈 이 가 업 는 니 라



# 六 鬼神之別

世 人 外 有 天 使

제간인 인를사 의 빛에 유슬잇 셴놀하 스릴 부하니

為 帝 用 成 帝 音

위 하 데금님 용 쓸이오 청을일 데근님 지 뜻나라

象 天 使 帝 造 成

중리무 셴놀하 스릴 부도 데금님 조을지 성을일 나이시

乃 靈 物 無 肉 身

내에이 령명신 물물 만이오 무슬헛 육기고 신 몸이라



得

득을얻

救

구원구

人

인를사이

受

슈을받

其

기그

助

조을도  
니하느

帝

테금님

命

명훈명

之

지갈  
하샤

常

상상홍

照

조철빛

顧

끄볼라도  
라느시

聖

성목거

書

셔글

中

중닥은가  
에

所

소바

言

언슴말

鬼

키신키  
느

非

비닐하

他

라를다

物

물물만  
이오

魔

마귀마

一

일훈

類

류훈  
코라

諸

저들모

邪

샤샤간

魔

마키마  
를

初

초음처

造

조을지

時

시해  
에

拜

비 절

偶

우 짝

像

상 상 형  
상 하야

陷

함 질 싸

諸

저 들 모

苦

고 올 로 고  
나 케  
중

專

전 지로 호

誘

유 올 이

人

인 톰 사  
하야

背

비 등

上

상 웃

主

주 금 남  
며 게  
중

離

리 날 떠

高

고 올 높

天

현 들 하  
하야

惡

악 쓸 몸

萬

만 만 일

端

단  
뜻 이  
라

因

인 훈 인

犯

범 훈 범

法

범 범  
으로

被

피 올 남

帝

테 금 남

趕

한 칠 쏘  
하야

未

미 날 아

犯

범 훈 범

法

범 범  
하야

亦

역 쏘

天

테 늘 하

使

스 릴 부  
러니



然

연 然 그

邪

샤 邪 간

魔

마 魔 모

終

종 終 못

被

피 被 남

逐

추 逐 썩

썩 逐 야

受

슈 受 받

永

영 永 길

刑

형 刑 벌

형 刑 고

下

하 下 래 아

地

디 地 사

獄

옥 獄 옥

라 이 니

論

론 論 의

魔

마 魔 마

鬼

귀 鬼 신

귀 鬼 대

聖

성 聖 무 거

書

셔 書 글

云

운 云 울

닐 云 샤

卽

즉 卽 곳

鬼

귀 鬼 신

首

슈 首 리 머 니

爾

아 爾 너

當

당 當 맞

明

명 明 을

북 明 라

真

진 真 춤

上

상 上 웃

帝

테 帝 금 남

不

불 不 닐 아

敬

경 敬 공

拜

배 拜 절

하 고

下  
하래 하

地  
디 새

獄  
옥 옥  
하야

受  
슈을 받

沉  
침 길 잠

淪  
륜 질 싸이  
라니

到  
도를니

死  
스을 죽

後  
후 뒤  
에

此  
츠 이

等  
등 리 무

人  
인 름 사  
은

卽  
즉 곳

稱  
칭 를 무 날

為  
위 하

魔  
마 키 마

鬼  
귀 신 귀

子  
즈 툐 하  
나라

行  
행 흘 행

世  
세 간 인

間  
간 이 스

諸  
저 들 모

邪  
샤 샤 간

事  
스 일  
중면

眞  
진 참

救  
구 원 구

主  
주 금 님  
들

不  
불 닐 하

依  
의 흘 지 의

賴  
뢰 슬 님  
힘  
있  
며

邪

샤 샤 간

魔

마 키 마

來

리 울  
하야

迷

미 울  
득 아

惑

후 울  
후

人

인 름  
사 이  
면

靠

고 흘 지 의

己

의 몸

力

력 힘  
하야

敵

덕 덕  
티

不

불 날  
아

勝

승 길  
이 이  
티

靠

고 흘 지 의

主

주 금  
님

功

공 공  
하야

求

구 흘  
구

天

천 늘  
하

父

부 비  
아  
이

賜

스 줄

聖

성 륜  
거

神

신 령  
신 이  
면

能

능 흘  
능

救

구 윈  
구

護

호 흘 위  
호  
하 리

세 상 사 록 받 기 띤 스 가 잊 스 니 하 느 님 의 쓰 심 이 되  
고 하 느 님 의 뜻 슬 일 우 느 니 라 여 러 띤 스 도 하 느 님  
씩 서 조 성 호 신 거 시 니 이 에 신 령 흘 물 건 이 오 육 신



이 업는 지라 구원을 얻는 사롬들이 그 도음을 받느  
니 하는 님 쇠셔 명호 샤홍상 빛최여 도라 보시느니  
라 성서에 말한 바 귀신은 다른 물건이 아니 오마귀  
와 죽류 1 라 모든 샤귀와 마귀를 처음은 들썩에  
법을 범치 아니 호여는 초호련스 1 러니 법을 범함으  
로 하는 님 쇠셔 쫓차 내심을 넘어 좁은 하를 썩나  
니 일만 가지로 악호지라 오르지 사롬을 쇠와 상주  
를 비판케 호며 우상의 제 절호야 모든 고로 음에 썩  
지게 호나 그 러 호나 샤귀와 마귀도 못춤 내 쫓침을 넘  
어 영원호 형벌을 받고 디옥에 드러가느니라 마귀를  
의론컨대 성서에닐으시 티곳 귀신의 머리니 너희가  
맛당이 북히라 춤되 신하는 님을 공경치 아니 호고 춤  
되 신구 주를 의지 호지 아니 호며 세상에 모든 간악호  
일만 호면 곳닐스기를 마귀의 아들이라 호느니라  
죽은 후에 이 러 호 사롬은 디옥에 느려 침류 호는 고 심  
을 받게 호느니라 샤귀와 마귀가 와셔 사롬을 미 호호

면즉귀의힘을의지하여스며덕을이끄지못하리  
니주의공로를의지하야하늘아바지의성신주심  
을구하면능히구원하리라



七 歌頌上主

大

대 큰

主

주 금님

宰

제 상 지

造

조 을 지

天

현 늘 하

地

디 그 사  
하 시

造

초 을 지

萬

만 만 일

物

물 물 만  
하 사

俱

구 다

齊

제 홀 즉

備

비 출 그  
니 하 시

大

대 큰

功

공 공

能

능 홀 능  
이

無

무 슬 업

既

기 의 임

極

극 홀 다  
이 라

該

히 당 맛

讚

찬 릴 기

義

미 올 다 름 아  
를

永

영 질

不

불 늘 아

息

식 실 이  
라 니



陸

륙 뭇

地

디 새

上

상 웃에

有

유 슬잇

五

오 좃 다

穀

곡 식 곡과

皆

기 다

帝

테 금 님

造

조 을 지라

德

덕 큰

難

난 올 터 어

名

명 흠 다 일이로

日

일 날

月

월 뜰

外

외 밖 에

有

유 슬 잇

衆

중 뭇

星

성 별 흥니

夜

야 밤

有

유 슬 잇

月

월 뜰 흥야

照

조 칠 빛

無

무 슬 업

邊

변 자 흥며

晝

주 낮

有

유 슬 잇

日

일 날 흥야

光

광 빛

滿

만 흘 특 마

天

텨 늘 하 흥고

帝

테금님

賜

스 줄

彼

피 터  
하샤

常

상상흥

有

유슬잇

吃

홀을 먹  
고 하시

林

림풀수

間

간이거

身

토태 새

無

두슬업

數

수어두

隻

척씩  
을

皆

리다

上

상웃

帝

테금님의

造

조을지

之

지갈

物

물물만  
이오

海

히다바

中

중딴온가

有

유슬잇

諸

취들모

水

슈물

族

족테거  
리

同

동지가흔

花

화꽃

草

초풀  
화

同

동지가흔

樹

슈모나

木

목모나  
이오



上

상 웃

帝

데 금 님

佑

우 을 도

世

세 간 인

間

간 이 사

人

인 름 사  
하샤

應

응 흘 응

萬

만 만 일

事

사 일  
하고

具

구 출 마

象

중 못

理

리 치 리  
라

人

인 름 사

之

지 갈

靈

령 령 신  
은

稟

품 을 받

於

어 늘

帝

데 금 님  
하니

天

텨 늘 하

父

부 비 아

養

양 를 기  
니 하  
시

惠

혜 혜 은

無

무 슬 업

窮

궁 흘 다  
다 이  
로

有

유 슬 잇

走

주 랄 따

數

슈 승 즈  
며

有

유 슬 잇

昆

곤 맛

蟲

충 레 버  
을

貴

귀 흘 커

與

여 블 더

賤

천 흘 천 을

總

총 다

不

불 날 아

論

론 론 의  
그 고 지

每

미 양 미

日

일 날

裏

리 속 에

有

유 슬 잇

口

구 입

糧

량 식 량  
항 며

有

유 슬 잇

房

방 들 구

屋

옥 집 과

同

동 지 가 혼

衣

의 옷

裳

상 마 치  
며 고 지

格

격 식 법

外

외 밖

顯

현 날 타 나

慈

즈 랑 스

愛

이 랑 스

心

심 음  
무 항 샤

遣

견 별 보

耶

야 스 조 어

蘇

소 날 사 살

救

구 율 구

萬

만 만 일

民

민 정 빅  
니 항 시

故

고 고 연

我

아 나

等

동 리 무이

該

회 당 맛

同

동 지 가 글

聲

성 리 소  
하야

讚

찬 릴 기

其

기 그

名

명 롭 일  
고

感

감 격 감

宏

굉 롭 너

息

은 혜 은  
다 이  
로

크 선쥬적 석서 현디 툴문드 시고 만불을문드 사다  
라 죽히라 초아 계시니 큰공파 능호심 이 임희 극진  
하니라 당연이 찬미 호기를 영영이 쉬지아 나 흘지  
니라 낫제는 희가 잊서 빛치하늘에 라 득호요 밤에  
는 돌이 잊서 빛최는 거시 가이 업스며 희화 들외에  
못별이 잊스니 다하느 님 석서 지은 거시 라 덕을 일  
흠호니 어렵도 다 록디에 오 무이며 섯과 풀이며 나  
모가 잊고 바다 희 잊는 모든 물고기 가 다 하느 님 석  
서 문드 신물 건이 오 슈 풀에 잊는 시가 수가 업는 거  
슬하느 님 석서 더 희 툴 주자 흥 상 먹 을 거시 잊게 호  
시 고 닷는 즘 승이 잊스며 버러 지가 잊슴을 하느 아





바지외셔기르시니은혜가무궁하도록도다사롬의령  
혼은하느님외받은거시니일만일을응하여야못리  
치가그촌지라하느님외셔셔상사롬을도으샤귀  
호고천군거술의론치아니호시고날마다먹을량  
식이외게하시며집과웃사외게하시며법외애즈  
호시니그런고로우리들이맛당니소리를곳치호  
야그일흠을찬머호고너른은혜를감사할지니라

八 救世真主

主

주금님

耶

야스조어

穌

소날하살  
는

上

상 웃

帝

테금님

子

즈들 아지거

從

종칠좇

天

틴늘하

降

강릴느  
하샤

來

리 올

救

구원구

世

세간인  
니홍지

非

비닐아

西

셔브셔

方

방 모

聖

성목거

與

여블터

賢

현질어  
이오

同

동지가흔

帝

테금님

父

부비아  
로

並

병을아

榮

영하영

權

권세권  
니이  
라시

帝

테 금 남

一

일 호

體

테 몸 에

分

분 흘 는

三

삼 석

位

위 리 자  
하 니

主

주 금 남

耶

야 스 조 어

蘇

소 날 아 산  
니

位

위 리 자

第

테 츠 테

二

이 두 나라

此

차 이

三

삼 석

位

위 리 자  
는

是

시 이

何

하 지 엇

稱

칭 를 크  
닐 고

曰

알 으 큼

父

부 비 아

子

즈 툴 아  
와

曰

알 으 큼

聖

성 륵 거

神

신 령 신  
라 이  
니

子

즈 툴 아

為

위 할

誰

슈 구 누  
오

卽

즉 못

耶

야 스 조 어

蘇

스 날 아  
갈 시  
니

有

유 슬 잇

稱

칭 룰 크 날

道

도 갈 호 고

稱

칭 룰 크 날

基

기 러

督

독 린 거 이 라

降

강 린 낙

生

심 날

後

후 뒤 에

成

성 울 일

為

위 흥

人

인 린 사 호 지

有

유 슬 잇

肉

육 기 고

身

신 몸 이 호

有

유 슬 잇

靈

령 령 신

魂

혼 녀 이 며

帝

메 금 님

性

성 품 성

有

유 슬 잇 호 고

人

인 룰 사

性

성 품 성

具

구 출 마 호 니

合

합 흘 합

二

이 무

性

성 품 성 호 야

成

성 울 일

救

구 원 구

主

주 금 님 니 라

60

我

아 나

救

구 원 구

主

주 금 님  
고

無

무 쓸 험

罪

죄 풀 허

愆

견 풀 허  
이 오

意

의 뜻

言

언 습 말

行

행 실 행  
에

善

선 훈 착

俱

구 기 함

全

전 전 니  
온  
하 시

耶

야 스 조 어

穌

속 날 아 살

來

리 올  
하 샤

救

구 원 구

法

법 법

成

성 올 일  
이 라

生

성 날

猶

유 훈 고

太

태 클

伯

백 맛

利

리 훈 리

恒

홍 상 허  
하 시

母

모 미 어

為

위 하

誰

슈 구 누  
오

馬

마 물

利

리 훈 리

亞

아 금 버  
니

小

쇼을적

山

산 윗

名

명흥일이

格

격을막

挖

흫 돌도

利

리 흫 리라

主

주금님

死

스을죽

慶

쳐 곳느

是

시 이

何

하지엇

地

디 사오

生

싱 날

耶

야스조어

穌

소날하살하니

事

스 일

果

과연과

真

진 참이로

馬

마 를

利

리 흫 리

亞

아 금버

感

감동감

於

어 늘

神

신 령 신하야

乃

내에이

童

동히으

女

녀 집 게로

初

초 음 처

未

미 날 아

嫁

가 갈 집 식에

釘

뎡 뭇

十

십 열

架

가 틀(하)샤

苦

고(로)피

難

난(려)어

當

당(하)니

息

은(하)은

至

지(하)지

大

대 큰(하)를

永

영(하)길

不

불(하)닐

忘

망(하)니

葬

장(하)장

墳

분(하)무

内

내 안(하)

止

지(하)컷

三

삼(하)석

日

일(하)날

便

변(하)문

復

부(하)다

生

싱(하)샤

勝

승(하)이

死

스(하)죽

勢

세(하)니

復

부(하)다

生

싱(하)날

後

후(하)에

往

왕(하)갈

何

하(하)엇

方

방(하)모

四

사 북

十

십 열

日

일 날에

升

승 를 오

天

텨름 하

堂

당 니라  
집하시

主

주 금님

耶

야 스 조어

蘇

소 날아 찰)

來

리 올

救

구 원 구

世

네 간시  
인하심

用

용 쓸

何

하 지 엇

法

법 법하야

成

성 을 일

此

차 이

事

사 일오

一

일 한

傳

전 흘 전

道

도 길요

一

일 호

立

립 설

表

표 밧요

一

일 호

代

타 신 타

贖

속 흘 속이니

為

위 하

至

지 극 지

要

요 긴 요라



用

용 쓸

真

진 음

道

도 길양야

化

화 흘화

人

인 룬사

心

심 음니 무양시

遵

준 칠죽

教

교 칠르ㄱ

者

자 음논

百

백 백 일

福

복 복

臨

림 흘라 림하리

凡

범 룯므

言

언 슌말

行

행 실 현애

做

주 슌지

榜

방 표

樣

양 양 모양야

使

스곰여향

人

인 룬사

心

심 음 무으로

有

유 슌 잇

定

딩 흘 텡

向

향 흘끄 향양시

歷

력 날 지

諸

저 들 모

艱

간 울려 어 향시

死

스 울 죽

十

십 열

架

가 클양샤

贖

속 흘 속

衆

중 못

罪

죄 물 허  
니 하  
하 사

功

공 공

至

지 극 지

大

대 큰  
로 다

欲

욕 흘 겨 고 하

赦

샤 흘 샤

罪

죄 물 허  
면

必

필 드 반

先

션 저 몬

贖

속 흘 속  
이 니

贖

속 흘 속

人

인 롬 사

罪

죄 물 허  
는

乃

네 에 이

耶

야 스 조 어

穌

소 날 아 삼  
라

爾

이 너

衆

중 못

人

인 롬 사  
의

貧

빈 난 가

與

여 블 더

富

부 열 음  
가

必

필 드 반

悔

회 칠 웃 뉘

改

기 칠 못  
고

信

신 을 믿

救

구 원 구

主

쥬 금 님  
하 라

三十一

三十一

信

신 음 밋

救

구 원 구

主

주 금 남 면

意

의 뜻

當

당 당 맛

曉

효 를 등 세 니

乃

내 예 이

認

인 할

之

지 잘

為

위 할

師

사 승 스

表

표 밖 와

為

위 할

主

주 금 남

宰

지 상 지 와

為

위 할

救

구 원 구

主

주 금 남 할 고

愛

의 랑 스

其

기 그

教

교 칠 르 마 할 야

為

위 할

其

기 그

徒

도 리 무 할 면

至

지 를 니

悔

회 칠 웃 뉘

改

리 칠 곳 너

知

지 할

己

기 몸

惡

악 질 모 이 으



天

하늘

堂

집

福

복을

享

누릴

永

길

久

오랄라 구

信

믿을

主

님

者

자 몸

必

반

得

얻을

救

구원 구하야

信

믿을

與

더

悔

회개

為

하

最

장

要

요긴 요니

望

바라

救

구원

者

자 몸의

必

반

知

알

道

도 길

憂

근심

已

몸

罪

죄물 허오

改

곳

已

몸

過

마물 허니타

쥬예수는하는닐의아들이니하늘노조차는리샤  
세상을구원하엿시니서방성현이하니오하늘아  
바지로출가지영광과권세를아오르시니라하는  
닐의출몸에세위가는호엿시니쥬예수쥬셔돌재  
위시니라이세위는무어시라닐것는고결은부와  
즈와성신이니라즈는뉘시오곳에수셔니도라고  
도닐것고그리스도라도닐궤름이잇는니라강심  
하신후에사롬이되섯시니육신도잇고령혼이잇  
스며하는닐의성품도잇고사롬의성품이궤초잇  
시니두성품이합하야구쥬가되시니라우리구쥬  
는죄와허물이업스시고뜻과말슴과행실에착훈  
거시마온전하시니예수쥬셔오샤구원하시는법  
이일윤지라유대빅리홍에나시어마는뉘시  
노마리아니이에쳐녀로식집가기전에마리아  
가성신에감동하야예수롤나흐니일이과연진실  
하도다쥬셔죽으신곳시어는싸현고산일홈이  
적홀리라십즈가에못박혀고난을당하시니은혜

가지극히음을 영원토록 잊지 아니 할지 이라 무덤  
 안 회 장 소 글 지 다 단 사 를 에 문 득 다 시 살 아 나 자 죽  
 는 권 세 를 이 과 시 니 다 시 사 신 후 에 어 티 로 가 신 고  
 스 십 일 후 에 현 당 에 오 르 시 니 라 주 예 수 석 세 오 자  
 세 상 을 구 원 하 실 시 무 습 법 을 써 이 일 을 일 으 었 는  
 노 후 나 흐 도 를 전 흠 이 오 후 나 혼 묘 를 세 움 이 오 후  
 나 혼 티 신 속 죄 하 심 이 니 지 극 히 요 긴 흠 이 된 지 라  
 좀 도 로 써 인 심 을 화 하 시 니 교 를 좃 는 자 는 비 가 지  
 복 이 름 하 리 라 므 롯 말 습 파 형 실 에 법 을 지 어 사 름  
 의 무 음 으 로 하 여 품 일 덩 향 흠 이 잊 게 하 시 고 모 든  
 어 러 움 을 격 그 시 며 십 즈 가 에 죽 으 자 못 사 름 의 죄  
 를 속 후 시 니 품 이 지 극 히 크 도 다 죄 를 자 하 라 후 면  
 반 드 시 문 셔 속 흠 지 니 사 름 의 죄 를 속 흠 은 이 에 예  
 수 1 시 라 못 사 름 이 가 난 혼 이 화 다 못 부 자 가 반 드  
 시 귀 웃 처 곳 처 고 구 주 를 밋 으 라 구 주 를 밋 으 면 뜻  
 시 맛 당 이 세 웃 칠 거 지 니 이 에 스 승 이 되 고 주 지 가  
 되 고 구 주 가 됨 을 알 고 그 교 들 스 랑 하 야 그 문 도 가

되 면 위 웃 쳐 곳 처 는 티 니 르 는 니 즈 기 의 악 흥 을 알  
고 지 기 의 죄 를 근 심 호 고 지 기 의 허 물 을 곳 처 는 니  
라 구 원 었 기 를 브 라는 자 의 반 드 시 알 거 스 밋 고 다  
못 위 웃 는 거 시 2 장 요 긴 흥 이 되 는 니 주 를 밋 는 자  
는 반 드 시 구 원 을 었 어 현 당 복 을 영 영 이 오 래 누 릴  
지 니 라

九 聖神感化

人

인 름 사

心

심 음 무

邪

샤 샤 간 를

何

하 지 엇

能

능 홀 능

正

정 를 바 끄

無

무 슬 업

別

별 를 다

法

법 법이 오

靠

고 홀 지 의

聖

성 륵 거

神

신 령 신 이 니  
라

在

지 슬 잇

上

상 웃

帝

테 금 님

一

일 호

體

테 몸

內

니 안 에

聖

성 륵 거

神

신 령 신

是

지 이

第

테 레 차

三

삼 석

位

위 리 자 니  
니



耶

야스조어

助

조을도

使

스곰여하

並

병을하

其

기 그

穌

소날아살

人

인름자

人

인름사

安

안안편

功

공공

云

운을닐  
티  
하샤

能

능홀능

知

지알

慰

위로위  
하고

用

용쓸  
은

不

불닐아

痛

통홀압

己

기몸

並

병을하

化

하홀하

重

중굵거

改

기칠곳

有

유슬잇

照

조첼빛

人

인름사

生

싱  
날이  
면

悔

회칠  
웃  
누  
너  
라

罪

죄몰  
허  
하  
고

亮

량을  
빛  
하  
며

善

션홀  
착  
하  
며

必

필 드 반

不

불 닐 와

進

진 갈 아 나

天

천 늘 하

國

국 라 나

門

문 이 라  
문 니  
홍 시

此

츠 이

重

중 톱 거

生

싱 날 은

如

여 흘 굿

何

하 지 엇

講

강 론 강 끄

復

부 흘 부 회

人

인 름 사

善

션 흘 착 이 오

活

활 살

天

천 늘 하

良

량 질 어 이 니

去

거 킬 브

舊

구 비

染

염 들 무 호 고

為

위 하

新

신 새

人

인 름 사 은

聖

성 륵 거

神

신 령 신

力

력 힘 이 오

人

인 름 사

不

불 닐 아

能

능 흘 타 능 이 니

有

유 술 잇

聖

성 륵 거

神

신 령 신 이

滿

만 흘 득 마

於

어 늘

心

심 음 무 이 면

則

즉 곳

德

덕 큰

慧

혜 혜 지

日

일 날

加

가 흘 더

增

증 흘 라 터 흐 리

信

신 을 믿

德

덕 큰

堅

견 을 굳 이 띤

迷

미 흘 득 아

惑

후 흘 후

滅

멸 흘 멸 흐 야

忠

충 성 충

事

사 길 섬

主

주 금 님 호 고

成

성 을 일

聖

성 륵 거

潔

결 흘 니 정 흐 디

靠

고 흘 지 의

主

주 금 님

名

명 흘 일 흐 야

求

구 흘 구

天

련 놀 하

父

부 비 아 라 야

方

방 모

能

능 홀 등

得

득 을 엇

聖

성 록 거

神

신 령 신

助

조 을 도  
다 하리

사롬의 믿음이란 사롬을 엇지 능히 바르게 할고다  
 른법이 업고 성신을 의지하느니라 하는님일 때안  
 회잇는 성신이 셋재 위니 그 공효는 사롬을 화하야  
 착하게 하며 평안케 위로 하고 빛최여 목게 하며 사  
 롬으로 하여 금조기가 죄잇슴을 알게 하고 사롬을  
 도아 능히 뒤웃쳐 못치게 하느니라 예수 이름은 사티거  
 롬나 지아니 하 면 반드시 련국에 나가 지 못하 다  
 하시니 이거 롬난 다 홀은 엇더케 강론 할고 사롬의  
 착한 믿음을 회복 하 고 현심어 진 믿음을 살게 하느  
 니 빛무든 거슬 브리고 새 사롬이 됨은 성신의 힘이  
 오 사롬은 능히 못하느니라 성신이 잇서 믿음에  
 득 하 면 덕과 지혜가 날 노더 하리라 믿는 덕이 곳으  
 면 미혹함이 멸하야 충성으로 주를 섬기고 거룩히  
 정결함을 열우리니 주의 일함을 의지하야 하 놀아

바지식구 하여야 밤야호로 능히 성신의 도으심을  
엇으리라



十 福 音 聖 教

上

상 웃

帝

테 금 님

道

도 길 을

稱

칭 를 크 님

何

하 지 엇

名

명 흥 일 고

垂

슈 올 리 드

永

영 길

久

구 렐 으

號

호 흥 일

福

복 복

音

음 리 소 이 니

上

상 웃

帝

테 금 님

道

도 길 을

要

요 이 주 를 모

人

인 름 사

知

지 알 니

莫

막 말

大

대 큰

恩

은 혜 은 은

主

주 금 님

降

강 릴 는

世

세 간 인 로 다

信

신을 믿

主

주님

道

도 길면

萬

만만 일

福

복 복

臨

림 흘림이니

因

인 흘인

此

차 이

故

고 고 연로

稱

칭틀라닐

福

복 복

音

음 띠 소이오

聖

성 륑가

教

교 칠라라

會

회 들 모는

主

주님

所

소 바

立

립 설이니

保

보 전보

天

런 늘 하

道

도 길하야

傳

전 흘전

地

디 따

極

극 건 극이오

教

교 칠라라

中

중 틈은가

禮

례 돈 레는

有

유 솔 잇

二

이 두

端

단 뜻하니



與

여 불 더

耶

야 소 조 어

穌

소 날 아 살 의

做

주 흘 지

門

문 문

人

인 른 사 이 오

且

차 또 고 흘 지 의

領

령 릴 느 거

洗

세 슬 씨 는

亦

역 또

表

표 밧

明

명 을 밧

靠

고 흘 지 의

聖

성 른 거

神

신 명 신 흘 야

除

저 탈 지 칠 르 마

污

호 올 러 더

穢

예 올 러 더 오

領

령 릴 느 거

洗

세 슬 씨

意

의 뜻 는

指

지 칠 르 마

人

인 룬 사

罪

죄 물 허 니

一

일 흘

領

령 릴 느 거

洗

세 슬 씨 오

一

일 흘

聖

성 른 거

餐

찬 을 먹 이 라



聖

성 록 거

餐

찬 을 먹

禮

례 돈 레는

主

주 금 남

設

설 플 배

定

정 흘 니 텅이 니

乃

내 에 이

表

표 박

明

명 을 밝

代

대 신 티

捐

현 릴 보

命

명 숨 목이 타

先

선 겨 몬

食

식 밥

餅

병 석 호 고

後

후 뒤

飲

음 실 마

酒

주 술 논

記

기 록 기

主

주 금 남

血

혈 피 이

為

위 호

我

아 나

流

류 룰 흐 니

入

입 들

教

교 철 루

者

자 놈

要

요 이 즉 롬 모

守

슈 힐 직

分

분 흘 라 논 이 니

乃

내에이

日

일

日

일

守

슈힐직

五

오섯다

倫

륜륜인이호

耶

야스조어

穌

소날아살

徒

도리무는

何

하지엇

如

여힐곳

人

인름사고

此

차이

三

삼석

條

토티가를

守

슈힐직

勿

물말

懈

히를으게하라

常

상상홍

禱

도빌

告

고힐고호고

守

슈힐직

禮

례돈례

拜

비절니

新

신새

舊

구네

約

약약언을

勤

근힐근

講

강을외

論

론론의호고

五

오 스 다

倫

륜 륜 인

外

외 밧에

敬

경 경 공

天

텨늘 하

父

부 비 아하며

悔

회 칠 웃 뉘

己

기 몸

罪

죄 물 허호고

信

신 을 밋

耶

야 스 조 어

蘇

소 날 아 삼호샤

衆

중 뭇

善

선 홀 착

德

덕 큰 을

守

슈 벌 직

勿

물 말

移

이 길 음호고

諸

저 들 모 중

邪

샤 샤 간

惡

악 질 모을

要

요 홀 구 요

脫

탈 슬 버

離

리 날 셔호며

嫖

표 홀 간 음

與

여 블 터

賭

도 기 닌 와

鴉

아 키 마 가

片

편 각 조

烟

연 기 연 을



供

공지바이

靈

령령신

位

위리자와

燒

쇼을살

錢

전돈

紙

지희조와

祭

제스제

祖

조비아할

先

선저몬과

拜

비절

死

스을죽

尸

시엄죽와

凡

범루브

虛

허블

事

스일들

切

절절근

莫

막말

行

행홀행호쇼

信

신을밋

主

주금님

者

자놈

有

유솔잇

所

소바

禁

금홀금호니

必

필드반

遠

원멀

開

키열

各

각각

一

일호

邊

변가호라

擇

택 불 갈

吉

길 불 길

日

일 날 파

畫

회 을 그

符

부 직 부

張

장 뜰 배 파

扶

부 들 붓

鸞

란 세

乚

계 칠 집 와

請

청 호 청

陰

음 늘 그

陽

양 벗 파

又

우 초

測

측 릴 아 헤

字

조 조 글 와

並

명 을 아

起

기 날

課

과 부 공 와

與

여 불 너

相

상 로 서

面

면 낫 파

及

급 칠 밋

命

명 숨 무

學

학 흘 배 이 니

此

츠 이

一

일 클

類

류 류 종 는

盡

진 흘 다

空

공 빛

虛

허 빛 흥 니

我

나

聖

성

教

교

必

필

嚴

엄

推

마

니

타

하느님의 도를 무삼 일 품으로 빌것노 영원이 오래  
도록 일함을 부음이 라 하느니라 하느님의 도를 모  
름 죽이 사름이 알거시니 더 클 수 업는 온혜는 주석셔  
세상에 강침함이로다 주의 도를 밋으면 일만 복이 오  
리니 이러함을 인함고로 복음이 라 빌 곳고 기록한 교  
회는 주석셔 세우신바 니 하늘 도를 보전 하야 사  
삿사지 전 하계 함심이 오교중에 레절은 두가지가  
잇스니 하나 혼령 세 함는 거시오 하나 혼성 찬막는  
거시라 령세 함는 뜻스 사름의 죄를 구르 침이니 성  
신을 의지 함야 더러운 거술 업시 함는 거시오 또 령  
세 함는 뜻스 초환에 주의 문인된 거술나 타 내여 복  
히 노 거시오 성찬 함는 레는 주석셔 베 프 러 명 함신  
거시니 이에 티 신 목숨 버 리 신 거술나 타 내여 복 함



이라몬서역을 먹고 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주의 피  
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거슬 기억하게 함이니 교  
에 드리오는 자가 모름즉이 직분으로 직할 거시니  
라 신약과 구약을 부즈러니 강론하고 흥상도 고함  
오 레비날을 직할 지니 이새 카지를 직히 티게 으르  
게 말나 예수 무리는 엇더한 사 롱인고 날마다 오  
름을 직히 고오 룬의 에하 놀아 바지를 공정하며 제  
죄를 누우고 예수 를 밋어 모든 착한 디을 직히 음기  
지 말고 모든 간사 함고 악한 거슬 버셔 브리기를 요  
구 하며 계집 오 입과 노 롱 함기 와 아편 연 먹는 거슬  
반 드시 멸니 혼가 희 더 지라 주를 밋는 자가 금 할 바  
가 잇스니 므 롯 헛된 일을 일 절 함지 말 순 조 상 의  
게 제 스 지 내 는 것 과 죽 은 신 테 의 제 절 함 는 것 과 령  
위에 공 양 함 는 것 과 지 전 살 오 는 것 과 획 일 함 는 것  
과 부 작 쓰 는 것 과 점 치 는 것 과 디 슘 함 는 것 과 파 주  
침 함 는 것 과 스 파 를 버 리 는 것 과 사 롱 의 상 보 기 와

스쥬보는거시니이러한류는다헛되니우리성교  
에셔는반드자엄하게막을거시니라





十一 去假歸真

帝테 造조 人인 意의 當당 知지  
님 지 사 뜻 맛 알  
을 을 을 니

要요 世세 人인 行행 實실 事사  
이 간 사 행 상 일  
즉 인 이 행 실 니  
도 이 라

實실 事사 何하 敬경 上상 帝테  
상 일 지 경 상 님  
신 로 공 웃 함 함  
며

愛이 衆중 人인 如여 愛이 已의  
랑 못 사 호 랑 몸  
스 을 이 스 스 함  
며

春

춘 봄

秋

추 가을

祀

사 제와

紙

지 회조

錢

전 돈

燒

쇼 올 살는

是

시 이

大

대 큰

錯

착 룯 그이니

真

진 참

無

무 쓸 없

用

용 쓸이오

供

공 향공

祖

조 비아 할

先

선 저 문 향며

祭

제 사 제

墳

분 덩 무

塚

총 덩 무은

天

틴 늘 하

下

하 래 아

人

인 름 사 의

大

대 큰

本

본 덩

分

분 흘라 는이니

守

슈 힐 직

五

오 숫 다

常

상 텃 텃으며

盡

진 흘 다

五

오 숫 다

倫

륜 륜 인이니

焚

분을살

成

성을일

灰

회 지하니

近

근을가갓

戲

희롱희

弄

롱롱다 희이로

若

약일만

要

요기요

錢

전 돈이면

紙

지희조

何

하지엇

用

용 쓸고

食

식밥

不

불닐아

足

족할족이니

必

필드반

凍

동얼

飢

기릴주오

魂

혼녁

若

약일만

吃

홀을먹이면

年

년히

一

일호

祭

제스제가

飛

비늘

作

작을지

灰

회 지니

盡

진홀다

徒

도갓흔

勞

로고 슈나라

人

인물사

死

사을죽

後

후 뒤에는

便

변득문

歸

귀갈타도

陰

음늘 그하야

無

무술업

食

식밥

用

용 쓸

等

동리무

事

사일

情

정 뜻이니

到

도몰니

親

친이버어

死

사을 죽하야

祭

제사제

己

이희임

遲

지될 더나라

盡

진홀다

孝

효도효

養

양 할은

在

지슬잇

生

성날

時

시 새하니

親

친이버어

己

이의임

死

사을 죽어든

力

력힘

要

요이죽림모

盡

진홀 다하야

三字經

四十四

按

안 함 안

本

본 밋

分

분 흘 분양

厚

후 올터 두

葬

장 스 장

塋

형 덩 무호고

墳

분 텨무

常

상 상 흥

修

슈 글 탁호며

訓

훈 칠 터 마

勿

몰 말

違

위 길 어호라

記

기 억 기

親

친 이 버 어

恩

은 헤 은 이

聖

성 특 거

教

교 칠 루 마

規

규 법 나라

하느님 책서 사름 드심을 뜻에 맞당이 알거시니  
모름족이 세상 사름이 실상일 만 할지니라 실상  
일은 부어 시고 하느님 올공정하며 못사름 사랑하  
기를 제 몸 사랑하듯 하며 오상을 직회고 오류를 다  
할지니 현하 사름의 큰 본분이 나라 조상을 공양하  
며 부업에 제스 흠은 이 크게 그릇 흠이니 총살티 업  
고 춘추도 제스 흠과 지전을 살오느거 스 직가 되여

들니느니 다 할 것 슈고 쉰이니라 혼이 만일 먹을터  
 히면 일년에 한번씩 제스가 먹기에 부족할거시니  
 번드시얼고 주릴거시오 만일 돈을 요구할러히면  
 조희를 무어시 쓸고 살나직가되니 희롱에 갓갑도  
 다 사름이 죽은 후에 논 문득 음부로 도라가 먹고 쓰  
 는 소정이 없느니 어버이 죽기에 이르러 제스하는  
 거시 임의 더티니라 효도로 공양을 다함은 살아실  
 썩에 잊스니 어버이 임의 죽거든 힘을 모롬 죽이다  
 할야 본분을 안힘 할야 두터이 선영에 장스 할고 분  
 묘를 흥상슈리 할며 유훈을 어긋지 말나 어버이 온  
 혜를 기억 할는 거시 형교에 귀모니라

十二 詳論禱告

凡

범 룯 므

禱

도 빌

告

고 훈 고

有

유 슷 잇

四

사 북

意

의 뜻 향 니

首

슈 리 머

讚

찬 릴 기

義

미 올 다 름 아

父

부 비 아

上

상 웃

帝

티 금 님 향 고

次

차 금 버

感

감 동 감

謝

샤 레 샤

帝

티 금 님

恩

은 혜 은

惠

혜 혜 은 향 머

第

테 레 츠

三

삼 석

件

건 지 가 느

認

인 알

己

기 물

罪

죄 물 허 오

為

위 하

己

기 몸

身

신 몸  
안하며

為

위 하

家

가 집

內

내 안  
안하며

求

구 홀 구

佑

우 울 도

護

호 위 호  
호하며

求

구 홀 구

援

원 원 구

救

구 원 구  
구하며

求

구 홀 구

何

하 지 잇

事

사 일 오

求

구 홀 구

赦

샤 홀 샤

宥

유 홀 샤  
샤하며

凡

범 릿 브

禱

도 빌

告

고 홀 고  
고를

要

요 이 즉 롬 모

誠

성 성 정

實

실 상 실  
이 니

求

구 홀 구

應

응 홀 응

許

허 락 허  
허

乃

내 에 이

第

테 레 六

四

스 六  
니 라



禱

도 빌

告

고 호 고

者

자놈

請

청 호 청

細

세 세

想

상 각 상 하 라

凡

범 록 르

禱

도 빌

告

고 호 고

有

유 슬 잇

四

사

樣

양 양 모 하 니

父

부 비 하

上

상 웃

帝

테 금 님

肯

궁 길 즐

聽

형 룰 드

我

아 나 지 니

凡

범 록 르

百

백 백 일

事

스 일 을

求

구 호 구

皆

기 다

可

가 흘 올 니

為

위 하

本

본 밋

國

국 라 나 음 며

為

위 하

教

교 칠 르

會

회 들 모 하 야

偶

우 연우

然

연 럽그

間

간 이 스 에

有

유 슬 잇

心

심 음 무

息

스 각 심 어 든

總

총 지 모 도

不

불 닐 아

拘

구 썰 리 거

在

저 슬 잇

何

하 지 엇

地

디 사 향 교

再

지 두

言

언 슌 말

明

명 을 니 불 향 스

心

심 음 무

禱

도 빌

義

의 흘 을 난

私

스 스 스

禱

도 빌

三

삼 석 이 오

公

공 될 번 공

禱

도 빌

四

스 북 니 라

心

심 음 무

禱

도 빌

一

일 혼 이 오

隱

은 슬 숨

禱

도 빌

次

츠 금 버 오

四十七

98

獨

독 노 홀

自

즈리스스

求

구 홀 구 할 티

心

심 음 두

靜

정 요 고

一

일 홀이오

隱

은 을 숨

禱

도 빌

告

고 홀 고 노

密

밀 홀 섹 섹

室

실 집

裏

리 속 에

心

심 음 두

內

내 안

求

구 홀 구

為

위 하

最

최 장 마

好

호 홀 도 오

非

비 날 아

明

명 을 북

說

설 음 말 이 오

心

심 음 두

暗

암 을 두 어

禱

도 빌 할 야

不

불 날 아

便

변 득 문

跪

케 질 안 러 구

難

난 올 려 어

言

언 음 말

之

지 갈 야

者

간 불

聖

성 륵 거

書

셔 글

或

혹 혹

一

일 흘

章

장 월 글항며

是

시 이

聖

성 륵 거

徒

도 리 무 의

常

상 텃 텃

規

규 법

矩

구 범 타

每

미 양 미

早

조 흘 일

晚

만 즐 느 에

同

동 지 가 호

禱

도 빌

顛

유 질 지 르 브 니

男

남 희 나 사

與

여 불 더

女

녀 집 계 와

老

로 을 늙

幼

유 릴 어

等

등 리 무 이

私

스 스 사

禱

도 빌

告

고 흘 고 느

領

령 릴 느 거

家

가 집

人

인 름 사 항 더

或

혹 혹

數

수 어 두

節

절 타 마 이 니

短

단 를 처

不

불 닐 아

妨

방을로해방  
라 이 니

同

동지가호

讚

찬 릴 기

義

미올다름하  
호고

同

동지가호

祈

기 빌

求

구 흘 구호되

早

조 을 일

不

불 닐 아

行

행 닐 트 이 면

晚

만 즐 느

必

필 도 반

有

유 슬 잇오

公

공 번 공

禱

도 빌

告

고 흘 고는

教

교 칠 르 ㄱ

友

우 벗

集

집 들 모호야

同

동지가호

心

심 음 무

志

지 뜻 호야

拜

비 절

上

상 웃

帝

메 금 님니

101



有

유 쓸 잇

用

용 쓸

物

물 물 만을

該

히 당 맞

知

지 알

恩

은 혜 은 이니  
라

皆

기 다

帝

테 금 님

息

은 혜 은 으  
로

所

소 바

賞

상 줄 상

賜

소 줄 니

需

슈 을 먹

用

용 쓸

物

물 물 만 이

從

종 질 좃

何

하 지 엇

至

지 를 니 오

倘

당 일 만

無

무 쓸 엇

有

유 쓸 잇 어 든

任

임 길 맞

別

별 를 다

方

방 모 하 라

禮

례 돈 례

拜

비 절

曰

일 날 에

聚

취 들 모

會

회 들 모

堂

당 접 이 오

若

약 일 만

不

불 날 아

然

션 쉼 그 이 면

虛

허 빛

進

진 갈 아 나

教

교 칠 루 마 니 라

敬

경 성 공

上

상 웃

帝

티 금 님 하 야

必

필 드 반

禱

도 빌

告

고 흘 고 하 라

靠

고 흘 지 의

耶

야 사 조 어

穌

소 날 아 살

大

대 큰

中

중 디 온 가

保

보 전 보 하 고

靠

고 흘 지 의

誰

슈 구 누

名

명 흠 일 하 야

來

리 을

禱

도 빌

告

고 흘 고 오

常

상 텃 텃

禱

도 빌

告

고 흘 고 를

要

요 이 주 름 모

虔

건 성 경

誠

성 성 경 이 니

으랏도고 흠이네가지 뜻서 잇스니 첫재는 아버지  
 하는님을 찬미하고 둘째는 하는님의 은혜를 감사  
 하며 셋재는 조기의 죄를 주복하는거시오 응허  
 신거슬 구하는거시 넷재니라 으랏도고하기를 모  
 롭즉이 형실이 흘지니 엇던일을 구하는고 죄를 사  
 하야 주심을 구하며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구하며 구원하야 주심을 구하며 조기를 위하며 집  
 안을 위하며 제나라를 위하며 교회를 위하며 범벽  
 스를 구하는거시 다가하니 아버지하는님 썩셔  
 저나 아버지는 거슬 드르시느니라 으랏도고하는거  
 시네가지 모양이 잇스니 도고하는자는 천국대조  
 세히 생각하라 믿음으로도고하는거시 첫재오 은  
 밀하게도고하는거시 둘째재오 스스로이도고하는  
 거시 셋재오 공변되이도고하는거시 넷재니라 두  
 번말하야 복하는니 믿음으로도고하는뜻스도 모  
 지어는 디방에 잇던지 불구고우연이 믿음에 심  
 각이 잇거든 문득 쓸지 아니하면 말하기가 어려오





니드러내여말슴을아니하고모음으로만이벨  
어모음속으로만구하는지장도흔거시오은  
밀하게도고는거스골방속에셔홀노스스구  
항티모음을정일하게하는거시오스스로이고  
하는거스집안사름을거느리티남녀와로유들이  
미양일어나느나흔가지로빌지니아는거룩한  
무리의뎃뎃한법이라성정에후한장과후두어구  
절을볼지나저른거스방해롭지아니하니라한가  
지로찬미하고한가지벌어구항티일즉이형한지  
못하면늦게는반드시잇슬거시오공번되이고  
하는거스교우들이모혀모음과뜻슬한가지로하  
야하는님의결하는거시나레비일에회당에모도  
히고만일회당이업거든다를티라도임의로하라  
먹고쓰는물건이어티로조차나르렀고다하는  
님의온혜로샹스하신거시니쓸티잇는물건을맛  
당이온혜를알지나라홍상도고한기를모름죽이  
정성으로홀지나취일흥을의지하여와셔도고

는 요 예수 큰 중 보를 의 지 호 요 하 는 님 을 공 경 호 야  
반 드 시 도 고 흘 지 니 라 만 일 그 러 치 아 니 할 면 교 에  
나 아 온 거 시 헛 거 시 니 라



十三 審判善惡

審

심 필 슬

判

판 단 판

主

쥬 금 님  
는

非

비 빌 아

閻

염 을 마

君

군 금 님  
이라

列

렬 별

十

십 열

殿

년 집  
의

都

도 지 모 도

虛

허 뵈

名

명 흙 일  
이 오

審

심 필 슬

判

판 단 판

主

쥬 금 님  
는

耶

야 사 조 어

穌

소 날 아 살

是

시 하  
니

天

런 늘 하

下

하 래 아

人

인 름 사  
을

俱

구 의 흥

必

필 드 반

至

지 를 니  
고 향 시



升

승 률 오

天

련 늘 하

堂

당 집 은

是

시 이

善

선 흘 착

人

인 름 사 이 오

主

주 금 님

台

티 별

前

전 압 예

審

심 필 슬

分

분 흘 느

明

명 을 밝 이 니

私

사 사 사

審

심 필 슬

時

시 세 느

魂

혼 녁

歸

귀 갈 라 도

陰

음 늘 그 흐 야

主

주 금 님

審

심 필 슬

判

판 단 판 이

有

유 슬 잇

一

일 호

定

정 흘 라 덩 이 니

按

안 힘 안

萬

만 만 일

民

민 성 백 의

意

의 뜻

言

언 슘 말

行

형 실 행 할 야

天

하늘  
넓  
런

下

하  
래

人

사  
이  
름  
인

身

몸  
신

再

두  
지

活

살  
이  
니  
활

公

공  
변  
될  
공

審

심  
필  
술

日

날  
은  
일

天

하  
늘  
런

地

사  
디

末

끝  
에  
말

止

지  
칠  
곳

兩

두  
량

處

곳  
1  
처

魂

넉  
혼

所

바  
소

歸

도  
오  
귀  
갈  
라

無

무  
슬  
업

六

여  
섯  
륙

道

길  
고  
도

無

무  
슬  
업

輪

박  
회  
륜

迴

돌  
고  
회

落

락  
질  
러  
셔

地

사  
디

獄

옥  
은  
옥

皆

다  
리

惡

모  
질  
악

魂

넉  
이  
라  
혼



身

신 몸

與

여 블 터

魂

혼 녀 이

各

각 각

相

상 로 서

合

합 돌 모 이 나

聽

팅 룰 드

主

주 금 님

審

심 필 슬

別

별 별 분

善

선 흘 착

惡

악 질 라 모 이 나

復

부 시 다

活

활 살

事

스 일 룰

載

지 를 시

聖

성 륵 거

經

경 글 흥 니

理

리 치 리

最

최 장 마

妙

묘 흘 묘 라

爾

이 너

宜

의 당 맛

明

명 을 다 밝 이 어

復

부 시 다

活

활 살

事

스 일 느

憑

빙 거 빙

據

거 거 빙

真

진 춤 이 나

主

주금님

苑

수을죽

後

후뒤에

三

삼씩

日

일날

生

생날이로  
심다

復

부시다

活

활살

體

테몸은

與

여블터

今

금제이

身

신몸으로

有

유술잇

分

분흔는

別

별를다하니

難

난올려어

並

병을아

論

론의이라

今

금제이

身

신몸

體

테몸은

無

무술업

榮

영하영

光

광빛이호

是

지이

血

혈피

氣

기은기니

易

이을쉬

朽

후을씩

亡

망출니와  
망이어



復

부 시 다

活

활 살

體

테 몸 느

榮

영 화 영

光

광 빛

有

유 슬 잇 요

乃

네 에 이

神

신 령 신

靈

령 령 신 이 니

強

강 흘 강

不

불 날 아

朽

후 을 썩 라

身

신 몸

譬

비 흘 비

種

종 자 종 칸 대

埋

미 을 붓

於

어 늘

土

토 흙 하 야

必

필 드 반

化

화 될

後

후 뒤 에

始

시 솔 로 비

發

발 필

出

출 날 이 니

其

기 그

發

발 필

生

성 날 은

新

신 새

形

형 상 형

狀

상 상 형 이 라



既

기 의 임

合

합 흘 합

後

후 뒤 에

便

변 득 문

發

발 필

落

락 질 러 셔 이 니

身

신 몸

與

여 블 더

魂

훈 북 이

再

지 두

相

상 로 서

合

합 흘 합 하 야

卻

각 득 문

是

시 이

出

출 날

原

원 본 근

種

종 조 종

裏

리 속 니 라

雖

슈 록 비

新

신 새

形

형 상 형 이

異

이 룰 다

舊

구 네

體

테 몸 나

與

여 블 더

種

종 조 종

子

조 들 아 로

乃

내 에 이

兩

량 두

樣

양 양 모 이 니

善

선 홀 착

升

승 른 오

天

현 뇨 하  
하야

享

향 릴 누

永

영 길

生

성 날  
하고

惡

악 질 모

受

슈 을 받

苦

고 을로 피  
라가

終

종 줌 못

沉

침 길 줌

淪

륜 질 싸  
이니

多

다 홀 만

謝

샤 례 샤

主

주 금 님  
호노

使

사 끄여 하

我

아 나

明

명 을 밝  
하야

此

차 이

真

진 참

理

리 차 리  
를

存

존 슬 잇

於

어 늘

心

심 음 다  
마로

真

진 참

理

리 차 리

明

명 을 밝  
이  
던

該

히 당 맛

感

감 동 감

激

격 동 격  
이  
니

熱

열을 더

心

심음

腸

장조 창으로

事

사심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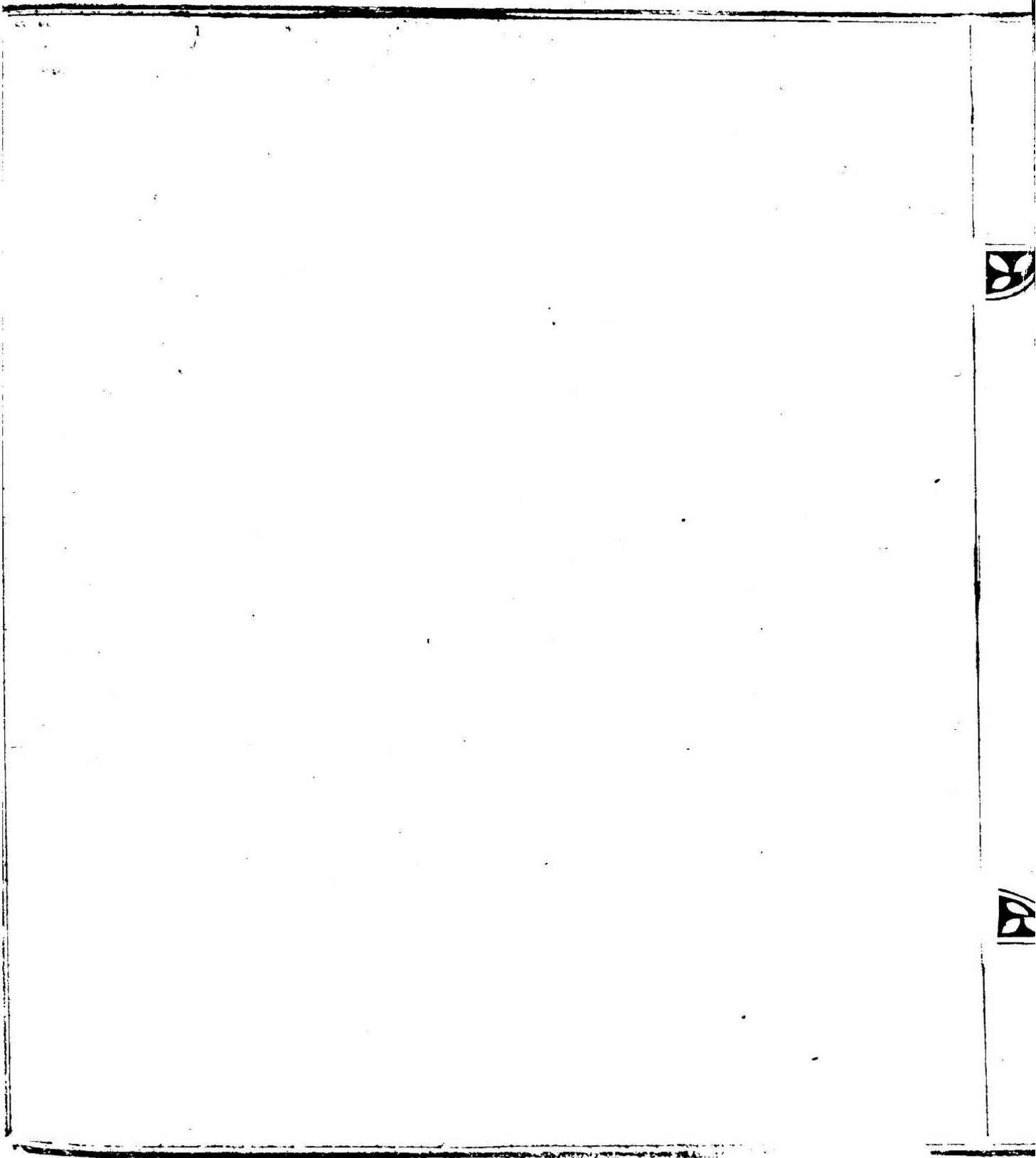
상우

帝

제금 남후라

집관하는주는 열라대왕이 아니라 집단을 버린 거  
시도모지 첫일흥이 오심관하는주는 에수시니  
현하사름을 흠씩판드시니 르게하시고 만민의  
과말파힘실을 안찰하야 주씩씩심관하는거시  
열당하심이잇는니라 스심관할새는 령혼이음  
부로도라가 주의 압희셔심관이 분명하는니 령당  
에오르는거손이 착한사름이오디 후에셔러지는  
거스다악혼이라 잇섯길이업는거시오 룬회도  
업는거시오 다만 두곳시 령혼들도라가는티오공  
심관하는날은 현다 마지막에 현하사름들이 육신이  
다시사는니 육신과 령혼이 서로 합하야 주의 심관  
을드러 현악을 분별하는니라 다시사는일을 성정  
에 기록하였시니 리치가 3장요한지라 너희는 맛  
당이 북히알지어다 다시사는일은 빙거가 춤되니

썩셔 죽으신 후 삼일 만에 다시 사셨도다 다시 사는  
몸은 지금 몸과 본별이 잇스니 아올나의 룬하기가  
어려오니라 지금 몸은 영광이 업고이느혈과니 썩  
어 업서 지기가 쉽거니와 다사사는 몸은 영광이 잇  
고이에 신령하니 강하야 썩지하니 하느니라 몸을  
종조에 비컨대 흠에 못어 반드시 화후에 비로소  
썩이나느니그나느니 스새형상이라 종조로더브  
러이에 두가지 모양이니 비록새형상이 넷몸과 다  
르나 문득근본종조에 서난거시니라 몸과령혼이  
두번서로 합하야 임의서로 합후에 문득발락이  
나느니 착혼이느림 당에 올나 영성하느복을 누리  
고 악혼이느고 성을 받다가 못춤내디 옥에 싸지느  
니라 주썩만히 감샤하노니 날노하여 품북제하야  
이춤리치를므음에 잇게 흠이로다 춤리치가 북으  
면맛당이 감격할지니 열심으로 하느님을 섬기라



十四 聖教經典

人

인 름 사

立

립 설

教

교 칠 르 ㄹ 도

俱

구 다

有

유 슬 잇

經

경 글 ㅎ 니

耶

야 거 조 어

穌

소 날 아 살

教

교 칠 르 ㄹ 는

書

셔 글

何

하 지 앓

名

명 흙 일 ㄱ

名

명 흙 일

聖

성 륵 거

書

셔 글 라

由

유 암 띠 말

上

상 웃

帝

테 금 님 ㅎ 니

與

여 블 띠

世

세 간 인

書

셔 글 로

大

대 큰

有

유 슬 잇

異

이 름 다 로 다

各

각 각

教

교

書

서

皆

기 다

由

유암미 말

人

인 룬 사이니

用

용 쓸

意

의 뜻

想

상 각 심하야

作

작 을 지

而

이 이 말

成

성 을 일 이어  
니 화

此

츠 이

聖

성 르 거

書

서 글  
한

帝

테 금 남

點

무 점 점

示

시 일 보

猶

유 흘 곳

太

태 클

人

인 름 사  
하 사

傳

전 흘 전

於

어 늘

世

세 간 인  
니 하 시

一

일 혼

新

신 새

約

약 약 언  
이 오

一

일 호

舊

구 테

約

약 약 언  
이 라



造

조을지

天

런늘하

地

디싸와

及

급칠밋

人

인름사

物

물물만과

書

셔클

大

대큰

旨

지뜻논

記

기룩기

上

상웃

主

주금님의

感

감동간

於

어늘

神

신령신하야

寫

사쓸

書

셔클

編

편칙이니

此

차이

舊

구베

約

약약언은

諸

져들모

聖

성룩거

賢

현질어이

分

분홀스

兩

량두

部

부예로되

意

의뜻

相

상로서

合

합홀합하니



言

인 슴 말

帝

테 금 님

選

션 섣

猶

유 흘 굿

太

태 클

人

인 롬 사 하 야

救

구 원 구

擲

나 을 잡

亞

아 금 버 하 야

縣

면 을 벗

支

지 톱 가

派

파 톱 가 와

載

지 를 시

洪

홍 를 너

水

슈 물 하 야

滅

멸 흘 멸

世

세 간 인

界

계 경 디 와

受

슈 을 받

帝

테 금 님

罰

벌 흘 벌 판

累

루 러 여

後

후 뒤

輩

비 리 무 와

並

병 을 다

始

시 솔 로 비

祖

조 비 아 할

犯

범 흘 범

大

대 큰

罪

죄 물 허 하 야



為

위 호

聖

성 록 거

民

민 성 박 하 야

守

슈 힐 직

律

률 범

論

론 론 의 이 오

且

차 또

其

기 그

中

중 덕 온 가 에

又

우 또

記

기 록 기

志

지 뜻 느

猶

유 홀 조

太

태 클

國

국 라 나

千

천 천 일

年

년 히

事

사 일 오

此

츠 이

外

외 밧

有

유 슬 잇

多

다 흘 만

聖

성 록 거

詩

시 글 오

多

다 흘 만

預

예 리 미

言

언 슴 말 이 니

出

출 날

先

선 저 문

知

지 알 니 라

至

지 르 니

新

신 새

約

약 약 언하야

其

기 그

大

대 큰

音

지 뜻은

記

기 록 기

耶

야 스 조 어

蘇

스 날 아 삼

降

강 릇 는

於

어 늘

世

세 간 인하샤

在

지 슌 잇

世

세 간 인

間

간 이 스 하샤

親

친 흘 친

立

립 설

表

표 밧하샤

行

행 흘 행

奇

기 특 기

事

사 일 하샤

傳

전 흘 전

真

진 참

道

도 길하샤

後

후 뒤

釘

뎡 못

死

스 읊 죽

十

십 열

字

즈 즈 글

架

가 틀하샤

立

립 설

教

교 할르

會

회 돌 모호티

在

지 슬잇

各

각 각

地

디 사 니 타

其

기 그

使

시 품여호

徒

도 리 무

傳

전 흘전

眞

진 참

理

리 치 리 호 야

四

스 비

十

십 열

日

일 날 에

歸

귀 갈라 도

帝

테 금 님

座

좌 리 자 호 시

苑

스 을 죽

三

삼 석

日

일 날 에

便

변 득 른

復

부 시 다

活

활 살 호 사

贖

속 훈 속

人

인 름 사

罪

죄 들 며 허 호 시

正

정 룰 바

天

련 늘 하

法

법 호 시

此

차 이

聖

성 특 거

書

서 글 논

從

종 칠 좃

天

천 높 하

至

지 를 니 하 야

乃

내 예 이

表

표 밧

明

명 을 분

上

상 웃

帝

폐 금 남

旨

지 뜻 오

有

유 슬 잇

權

권 세 권

柄

병 로 자 하 야

能

능 홀 능

定

딩 홀 텡

下

하 래 아 하 니

人

인 남 사

本

본 밧

分

분 흠 느 이

毫

호 삿 릴

不

불 닐 아

差

차 길 어 요

有

유 슬 잇

智

지 헤 지

慧

혜 헤 지 하 야

解

히 풀

人

인 를 사

疑

의 심 의 요

有

유 술 잇

真

진 음

理

리 치 리 하 야

化

화 될

人

인 룬 사

迷

미 혼 특 아 로 다

生

싱 날

死

스 을 죽

理

리 치 리 와

善

션. 흘 착

惡

악 흘 악

報

보 흘 갑 툴

讀

독 을 러

此

차 이

書

셔 글 궁 텨

便

변 득 른

知

지 알

道

도 길 리 따

身

신 몸

與

여 블 터

魂

혼 녁 이

分

분 흘 느

別

별 풀 다

出

출 날 따

論

론 론 의

天

현 뇨 하

堂

당 집 따

論

론 론 의

地

디 처

獄

옥 옥 따

救

구원구

魂

혼 녀

法

법 법을

亦

역 또

詳

상 세

細

세 세 조호니

此

츠 이

書

셔 글

外

외 밖에는

無

무 슬 없음

實

실 상 실

據

거 거 빙라

至

지 극 지

寶

보 비 보

貴

귀 홀 귀는

此

츠 이

書

셔 글

籍

적 글이니

萬

만 만 일

國

국 라 나

人

인 료 자의

所

소 바

當

항 당 맞

習

습 힐 의이라

譯

역 역 번

方

방 모

言

언 슌 말

二

이 두

百

백 백 일

處

처 곳 하야

廣

너  
광

流

흐  
류

行

행  
행

此

이  
차

聖

거  
성

書

클  
서

클  
니  
라

사 롬 이 세 운 교 도 다 정 셔 가 잇 스 니 예 수 교 는 글 을  
무 거 시 라 일 흥 흥 고 일 흥 흥 은 성 셔 라 하 느 님 으 로 말  
미 암 었 시 니 세 상 글 노 대 단 이 다 롬 이 잇 도 다 각 교 에  
글 온 다 사 롬 으 로 발 미 암 었 시 니 뜻 파 칭 각 으 로 써  
지 어 일 우 었 거 니 와 이 성 셔 는 하 느 님 셔 셔 유 래 사  
롬 의 게 목 시 흥 셔 세 상 에 전 호 시 니 흥 나 혼 신 약 이  
오 흥 나 혼 구 약 이 라 두 셔 에 는 호 었 시 나 뜻 스 셔 로  
합 흥 니 이 구 약 온 모 든 성 현 이 성 신 에 감 동 흥 야 글 에  
써 지 니 글 의 큰 뜻 스 하 느 님 셔 셔 련 디 와 인 물 을 문 드  
지 고 아 울 나 시 조 가 큰 죄 를 범 흥 야 하 느 님 의 벌 을  
받 은 것 파 조 손 의 게 루 된 것 파 흥 슈 를 실 어 세 계 를  
멸 흥 것 파 나 와 롬 구 흥 야 지 파 를 퍼 지 게 흥 것 파 하  
느 님 셔 셔 유 래 사 롬 을 써 셔 거 록 흥 의 성 을 문 드 러  
법 파 의 롬 을 직 회 흥 신 거 슬 기 록 흥 고 조 그 흥 에

三字



六十二





기록한 뜻은 유대국 천년일이 오이 빛기 기록한  
이 만히 있고 미리 할 말이 만흐니 선지로 내게 하신  
거시 나라 신약에 이르러 그 큰 뜻은 수석 세상에  
에 강성 하사 세상에 서 친히 표를 세우시고 기이  
일을 행하시며 춤도 들전 하시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사 롱의 죄를 속하시고 하늘 법을 바르시고 죽  
으신 지 삼일 만에 다시 살어나 사십 일 후에 하는  
님의 우편 자리에 도라 가시니 그 스도들이 춤 리치  
를 전 하야 교회 들 세우 티 각 지방에 잇는 나라 이 성 정  
은 하늘 노 조차 니 르 러 하는 님 의 뜻 을 표 하 야 불 히  
고 권 세 자 로 가 잇 서 능 히 아 래 을 덩 하 니 사 롱 의 본  
분이 열 곳 만 콤 도 어 그 러 지 아 니 하 고 지 혜 가 잇 서  
사 롱 의 의 심 을 풀 고 춤 리 치 가 잇 서 사 롱 의 모 음 아  
득 한 거 술 화 하 도 다 죽 고 사 는 리 체 와 신 약 의 보 용  
을 이 글 을 나 으 면 문 득 알 니 라 몸 파 다 못 령 혼 이 분  
별 하 여 난 첫 파 령 당 을 의 롭 호 첫 파 디 육 을 의 롭 호 첫  
파 령 혼 구 하 는 법 을 초 호 주 세 히 하 니 이 글 의 에 는  
실 상 밍 거 가 업 는 지 하 지 국 리 보 비 롭 고 귀 호 거 스

이클썸이니만국사툼의맛당이익힐거시라이박  
곳방언으로번역하야닐니이성경을류행하엿  
니라

十五 畧引聖經

有

유 슌 잇

亞

아 금 비

當

당 당 맛ㅎ니

在

지 슌 잇

太

태 클

初

초 음 치라

乃

내 에 이

天

현 놀 하

下

하 래 아

人

인 름 사

始

시 솔 도 비

祖

조 비 아 할 오

有

유 슌 잇

夏

하 름 녀

娃

와 집 계ㅎ니

亞

아 금 비

當

당 당 앓

婦

부 미 어 지 타

天

현 놀 하

下

하 래 아

人

인 름 사

始

시 솔 로 비

祖

조 비 아 할

母

모 미 어 오

洪

홍를너

水

슈물

時

시세에

滅

멸홀멸

生

싱날

物

물물만하니

悅

열불깃

帝

테글님

心

심음무하야

起

기날

妒

투과투

忌

기홀기나라

為

위하

何

하지엇

殺

살일죽고

因

인홀인

其

기그

弟

테오아의

殺

살일죽

亞

아금버

伯

빅맛하니

乃

내에이

其

기그

弟

테오하로다

有

유솔잇

該

히당맛

隱

은을숨하니

惡

악질모

無

무슬업

理

리치리하야

是

시 의

何

하 지 엇

人

인 름 사 이

得

득 을 엇

救

구 원 구

出

출 날 고

有

유 슬 잇

挪

나 을 잡

亞

아 금 버 호 나

與

여 불 더

其

기 그

妻

처 히 안 와

其

기 그

三

삼 석

子

자 돌 아 와

及

급 철 밋

三

삼 석

媳

식 리 는 며 이 라

子

자 들 아

何

하 지 엇

名

명 흠 일 고

閃

섬 썩 번

舍

함 을 음 버

是

시 이 거

並

병 을 아

雅

아 을 록

弗

불 날 아 호 야

傳

전 흘 전

宗

종 루 마

支

지 들 가 호 고

亞

아 금 버

伯

박 맛

蘭

란 초 란 논

猶

유 홀 조

太

태 클

祖

조 비 아 할 니

事

스 길 섬

上

상 웃

帝

테 금 님 에

信

신 을 밋

最

최 장 ㄱ

篤

독 올 띠 도 이 오

二

이 두

世

세 간 인

祖

조 비 아 할 논

名

명 흥 일

以

이 씨

撒

살 흘 후 이 니

蒙

몽 쓸 립 무

帝

테 금 님

愛

이 랑 스 하 야

守

슈 횡 직

帝

테 금 님

法

법 범 하 고

至

지 룰 니

雅

아 을 목

各

각 각 하 야

乃

내 에 이

三

삼 석

世

세 간 인 오

以

이 써

色

색 빛

列

렬 벌은

别

별 른 다

名

명 흠 일

是

시 이라

十

십 열

二

이 두

子

자 둘 하

分

분 흠 는

支

지 틈 가

派

파 틈 가 하 야

猶

유 홀 또

太

태 클

國

국 라 나 에

傳

전 흠 전

宗

종 루 마

代

대 신 라 하 니

有

유 슬 잇

摩

마 질 문

西

서 특 서 하 니

温

온 습 다

柔

유 홀 유

極

극 장 7 하 야

領

령 립 나 거

猶

유 홀 또

太

태 클 하 요

出

출 날

埃

이 끌 티

及

급 칠 가 밋 이 라

西

셔 녀 셔

奈

내 지 잇

山

산 뭇에

傳

전 흘 전

帝

테 금 남

命

명 숨 목 흘 서

十

십 열

條

톈 지 가

試

계 계 정 룰

授

슈 줄

百

백 백 일

姓

성 성 호 고

有

유 슬 잇

大

대 큰

關

벽 날 열 호 니

在

지 슬 잇

看

간 볼

羊

양 양 이 라

被

피 을 님

上

상 웃

帝

테 금 님 의

施

시 흘 배

恩

은 헤 은

光

광 빛 호 야

立

립 설

為

위 호

王

왕 금 님 호 니

管

관 릴 는 거

大

대 큰

業

업 업 호 야



使

스곰여ㅎ

治

치릴스다

理

리릴스다

以

이 써

色

식 빛

列

렬 별ㅎ고

大

대 큰

闕

벽 널 열

子

즈 돌 아

所

소 바

羅

라 벌

門

문 문은

彼

피 더

生

성 날

性

성 품 형이

最

최장 마

聰

총 을 북

明

명 을 북ㅎ고

救

구 윗 구

世

세 간 인

者

자 놈느

卽

즉 곳

耶

야 스 조 어

穌

소 날 아 살시니

虛

허 뵈

己

기 몸

榮

영 화 영ㅎ고

降

강 릴스

下

하 래 하

土

토 흙ㅎ고

到

도를 거

光

광 빛

緒

서리마삼

十

십 열

六

륙 솟 여

年

년 히에

千

천천 일

八

팔 곱 여

百

백 백 일

九

구 홉 아

十

십 열

年

년 히이라

開

기 열

先

선 겨 문

路

로 길 노

乃

내 에 이

約

약 약 언

翰

한 개 놀이 나

施

시 플 배

洗

제 슬 세

禮

례 돈 례 룰

在

지 슬 잇

約

약 약 언

但

단 만 다이라

主

주금 남

耶

야스조어

穌

스날하삼

親

친 흘 친

領

령 립느거

洗

제 슬 세 나 히사

既

귀의임

為

위하

人

인류사에

當

당당맛

盡

진할다

禮

례돈례나라

十

십열

二

리두

人

인류사이

從

종킬좃

耶

야스조어

蘇

소날아살하야

面

면낫

受

슈을받

教

교철르마하교

稱

칭틀르날

使

스금여하

徒

도리무하니

奉

봉들받

主

쥬금님

旨

지뜻하야

傳

전출전

福

복복

音

음리소하교

招

초를부

萬

만만일

象

쥬리두하야

學

학홀비

而

이이말

信

진을따잇하니

有

유 슬 잇

愛

의 탕 스

徒

도 리 부 호 니

名

명 흥 일

約

약 약 언

翰

한 개 놀 이 라

傳

전 흥 전

真

진 총

理

리 치 리 툴

熱

열 울 더

心

심 음 명

腸

창 조 창 이 오

有

유 슬 잇

彼

피 더

得

득 을 었 호 니

不

불 볼 아

認

인 알

主

주 금 호 로 다

後

후 뒤

知

지 알

悔

회 칠 웃 뒤 호 야

心

심 음 명

痛

통 흥 압

苦

고 울 로 피 호 고

賣

매 팔

耶

야 스 조 어

穌

소 날 아 살 는

名

명 흥 일

猶

유 흥 조

大

대 큰 니

其

기 그

貪

탐 탐 탐

心

심 음 미 이

最

최 경 ㄱ

可

가 를 을

怕

파 울 러 두 라

後

후 뒤

痛

통 흘 압

悔

회 철 웃 뒤

不

블 닐 아

該

히 당 맛

賣

매 팔 호 고

退

회 날 불

回

회 을 라 도

銀

은 은

三

삼 석

十

십 일

塊

괴 이 덩 나

賣

매 팔

主

주 금 님

血

혈 피 은

罪

죄 불 허

莫

막 들

比

비 길 비 디

銀

은 은

退

회 날 불

回

회 을 나 도 호 고

便

변 득 문

自

즈 디 스 스

縊

획 밀 라 목 호 니

後

후 뒤

來

리 올

受

슈 을 받

上

상 웃

帝

테 금 님

刑

형 벌 형호야

反

반 혈로 도

厭

염 혈 슬

惡

오 흘 위 뭐 호야

害

해 흘 해

至

지 를 니

死

스 을 죽 호니

不

불 닐 아

認

인 알

主

쥬 금 님

來

리 을

救

구 원 구

世

세 간 인 호고

猶

유 흘 조

太

태 클

人

인 롬 사 이

惡

악 질 모

非

비 닐 아

常

상 텃 다 텃 이 르

釘

뎡 못

耶

야 조 어

魚

소 날 아 살

十

십 열

架

가 틀

上

상 웃 호니

滅

멸 흘 멸

其

기 그

國

국 라 나  
하 고

散

산 흘 홉

其

기 그

民

민 성  
빅  
하 니

此

츠 이

重

중 흘 중

刑

형 벌 형을

主

주 금 남

先

선 겨 문

言

언 습 니  
말 이 시

猶

유 흘 옥

太

태 클

人

인 름 사  
이

수

글 제 이

可

가 흘 을

憐

련 흘 상  
다 불 이 로

散

산 흘 홉

四

사 녁

方

방 모  
하 야

無

무 슬 업

寸

촌 톨 마

土

토 흙  
하 고

失

실 흘 일

本

본 밋

國

국 라 나  
하 니

真

진 줌

苦

고 을 로  
느

楚

초 흘 앞  
로 다



主

주금남

不

불닐아

苑

스을죽면

衆

중뭇

人

인름사

魂

혼늑느

願

원홀원

替

테신티

死

스을죽하니

德

덕큰

無

무솔업

涯

히가로다

因

인홀인

要

요꾸요

成

성을일

救

구원구

世

세간인

法

범범하야

諸

저들모

苦

고올로고

難

난올러어을

甘

감톨

心

심음마

受

슈을맛느

主

주금남

全

전전온

能

능홀능으로

不

불닐아

自

자리스스

救

구원고구하시



凡

범릇므

不

불닐아

信

신을뎛이면

罪

죄불허

與

여블더

同

동지가호이니라

獲

획을엇

大

대큰

罪

죄불허는

心

심음

意

의뜻

兇

흉할흉이니

殺

살일죽

害

해할해

主

주금님는

逞

逞홀패

己

귀몸

私

스스스오

猶

유홀又

太

태클

人

인름사이

不

불닐아

明

멍을복

此

타이호야

無

무슬업

指

지칠르마

望

망랄반호야

永

영길

沉

침길좀

淪

륜질싸이리라

아당이 잇스니 태고에 잇는지라 이에 락하사름의  
 시조요 하와가 잇스니 아당의 지어미라 락하사름  
 의시조모요 히은이 잇스니 약고도리가 엽서하  
 빅을 죽엿시니 이에 그아오로다엿지하야 죽엿는  
 고그아오가 하느님의 무음을 즐겁게 흠을 인하야  
 투기 흠을 니르키니라 홍슈시절에 심물을 멸하니  
 이엇더훈사름이 구원 흠을 엿엿는 노나와가 잇스  
 니그안히와그세아들파밧세며느리라 아들의 일  
 흠은 무어시뇨 섬파함이니 하블사지아을너종지  
 을전하 고아빅란은 유대국 조상이니 하느님을 섬  
 기매 밧음이 그 장돈독하 고이세조는 일흠이 이살  
 이니 하느님의 사랑 흠을 넘어 하느님의 법을 직히  
 고아각에 니르려는 이에 삼세오이 석렬은 별명이  
 라 열두아들이 지파를 호어 유대국에 종티를 전  
 하니 라마셔가 잇스니 지극히 온유하야 유대사름  
 을 거느려이 급에 서나 오다가 서내산에 서하느님

의 명호신거슬 전홀시 열 가지 계명을 빅성의게 주  
고 대벽이 잇스니 양치는 티 잇다가 하느님의 은혜  
배프심을 입어 새워넘금이 되니 큰업을 거느려 호  
여 품이 식렬을 다스리게 하고 대벽의 아둔 소라 문  
은 더의 현성품이 2 장 총명하고 세상 구원함이  
는 곳에 수시니 즈기 영화를 뷔고 하도에 강침하시  
니 광서 십륙년에 니르러 열천 팔백구십년이라 문  
저 길을 연이느이에 약한이니 새레베프기를 약탄  
에 서하시니 라쥬에 수씩서 친히 령세하시니 임의사  
름이 되매 맛당이 레를 다 할지니라 열두사람이 예  
수를 조차 낫하시야 2 르침을 받고 스도라 날 2 르니  
쥬의 뜻슬 받드러 복음을 전하고 일만 무리를 불너  
비화밧게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문도가 잇스니 일흠은  
약한이라 총리치 전하기를 열심으로 하고 피득이  
잇스니 쥬를 하지 못하시노라 하시다가 후에 알고 뉘  
웃쳐 드음이 압호게 피로워하고 예수를 관이느

일홈이 유대니 그 략심이 2 장 두 럽도 다 후에 맛 당  
 이 과 지 아 니 흘 거 술 누 웃 고 은 삼 십 덩 아 를 물 니 나  
 주 의 피 를 관 거 손 죄 가 비 흘 티 가 업 는 지 라 은 인 주  
 물 니 치 고 문 득 스 스 로 목 미 니 라 예 수 를 십 즈 를 우  
 회 못 결 항 엿 시 니 유 대 사 롬 이 죄 악 이 비 상 항 도 다  
 주 석 셔 오 샤 세 상 구 원 항 심 을 알 지 못 항 고 도 로 러  
 위 위 항 여 해 항 야 죽 기 에 니 르 니 후 에 하 는 님 의 형 벌  
 을 받 아 그 나 라 흘 멸 항 고 그 빙 성 을 흐 호 니 이 중 환  
 형 벌 을 주 석 셔 머 리 말 숨 항 시 니 유 대 사 롬 이 지 금  
 가 련 항 도 다 스 방 에 흐 허 잇 서 촌 도 가 업 고 본 국 을  
 일 헛 시 니 춤 고 심 이 로 다 주 의 전 능 항 심 으 로 스 스  
 로 구 원 치 아 니 항 시 고 모 든 고 난 을 감 심 항 야 바 은  
 거 손 구 세 할 법 일 우 기 를 인 항 야 티 신 죽 기 를 원 항  
 니 덕 이 가 히 업 도 다 주 석 셔 죽 지 아 니 항 면 못 사 롬  
 의 혼 는 브 탈 거 시 업 서 영 원 이 침 료 항 리 라 유 대 사  
 롬 이 이 거 술 북 지 못 항 야 주 를 살 해 흠 은 즈 기 스 스

무음을 쾌히 흉이 오 큰 죄를 엮음은 무음과 뜻서 흉  
악함이 니대 더 밋지 아니 하면 죄가 더 브러 흘가지  
니라

十六 警醒幼童

小

쇼을작

子

즈틀아

們

문리루아

本

분 밋

不

불닐아

一

일 호이라

好

호 흘도

不

불닐아

好

호 흘도에

兩

량 두

等

등 리 무

矣

의 비 주니라

惡

악 질모

小

쇼을작

子

즈틀아는

無

무 슬 업

敬

경 경 공

心

심 음 무하야

輕

경을야브가

上

상 웃

帝

메 금 남와

逆

역릴사거

雙

쌍 쌍

親

친 이 버어 파

三字經



七十三

活

할 살

在

지 슬 잇

世

세 간 인 에

無

무 슬 업

真

진 참

福

복 복 이 오

最

최 장 마

可

가 흘 올

怕

파 울 려 두 느

是

시 이

帝

제 금 님

怒

노 벌 성 로 다

此

차 이

等

등 리 무

子

즈 돌 아 톨

誰

슈 구 누

不

불 닐 아

惡

오 흘 위 뉘 리 오

說

설 슴 말

謊

황 말 좃 거

話

화 슴 말 에 느

無

무 슬 업

不

불 닐 아

能

능 흘 능 이 니

或

혹 혹

咒

주 주 조

罵

미 질 지 허 와

或

혹 혹

騙

편 일 속

人

인 름 사 파



敬

경 경 공

上

상 웃

帝

테 금 님  
호고

孝

효 효 효

父

부 비 아

母

무 미 어  
호며

好

호 흘 요

小

쇼 을 죽

子

저 들 아  
노

信

신 을 밋

救

구 원 구

主

주 금 님  
호며

與

여 불 터

惡

악 질 모

鬼

귀 신 귀  
로

一

일 혼

同

동 지 가  
혼

住

주 물 머  
나라

地

디 지

獄

옥 옥

裏

리 속  
노

惡

악 질 모

人

인 름 사

處

저 곳  
타

死

스 을 죽

必

필 도 반

受

슈 을 받

地

디 지

獄

옥 옥

苦

고 올  
로 피  
나

152



不

불닐 아

論

론론 의

是

지 이

何

하 지엇

罪

죄물 허

惡

악질 모호고

心

심음 마

惱

노호답답

限

호호호  
호를

不

불닐 아

肯

궁갈 즐

作

작을라 지이니

好

호호요

小

소을적

子

즈돌하

若

약일만

身

신몸

亡

망홀망이현

到

도를니

何

하 지엇

處

켜곳으

卽

즉곳

天

런늘하

堂

당집이니

天

런늘하

堂

당집

上

상웃은

號

호호일

明

명을보

宮

궁집이라



無

무슬업

罪

죄물허

惡

악질모호며

無

무슬업

苦

고을로피

難

난올려어이오

到

도를나

天

덴늘하

堂

당집이면

心

심음마

暢

창홀창화

歡

환볼깃호고

有

유슬잇

天

덴늘하

使

스곰여호호며

有

유슬잇

聖

성목기

徒

도리무호니

有

유슬잇

上

상웃

帝

테금님호며

有

유슬잇

耶

야스조어

穌

소날아살호며

多

다흘만

光

광빛

亮

량을밝호고

福

복복

無

무슬업

窮

궁홀다호며



到 니를도  
 天 하늘  
 堂 집이던  
 永 길영  
 不 아닐불  
 離 서고리

享 누릴향  
 真 참  
 福 복  
 與 더불어  
 天 하늘  
 齊 가나타

쇼주의무리들아근본이하나하나하나라도코도치  
 아나흔것두가지나라악한쇼조는공정하는모음  
 이업서하는님을정홀이녀이느것과쌍친을거스  
 리는것과후사름을악담하는것과후사름을축이  
 는것과거조말하는티에느능하지아니함이업는  
 니이런조식을누구가위워아니할러오그장두려  
 온거스하는님의노함침이라살아세상에잇스매  
 좀복이업고죽어서반드시디우고침을받는니디  
 옥속은악한사름잇는티라악귀로더브러흔가지  
 로머무는나라도흔쇼조는구쥬를밋으며하는님

을 공경하고 부모의 계효도 하며 었던 죄악이던 지  
의론치 아니하고 믿음에 답답하고 흐르는 일을 즐  
거 짓지 아니하는 나라도 혼쇼즈가 만일 몸이 죽으  
면 어느 곳에 나르는 노릇던당이 나던 당우희는 일  
흔이 명중이라 빛치 명량흔이 만코 복이 무중흔며  
하는 님이 계시며 예수가 계시며 천스들이 잇고 거  
룩흔 무리가 잇스나 텨던 당에 나르면 믿음이상 쾌하  
며 깃브고 죄악이 업스며 고난이 업고 텨던 당에 나르  
면 영영셔나지 아니하고 증복을 누리하늘과 가 즉  
하리라